

정릉야생부





들어가는 말

정릉의 동네사람들이 모여 첫 잡지를 낸 것이 벌써 만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첫 잡지를 낼 때부터 늘 ‘과연 다음 호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지만 반복된 고민의 횟수만큼 꼬박꼬박 <정릉야책>이 나와줬네요. 더욱이 지난 호부터는 잡지 모임인 호박이닝쿨덩쿨의 동네작가들 외에 새로운 주민 분들의 일상과 인생이 점점 담기기 시작하더니 이번 호에는 더 많은 주민 분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는 요즘 ‘골목식당’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TV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아리랑시장에 관한 기사가 두 개나 실렸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을까요? 호박이닝쿨책-야책이 있는 아리랑시장의 김진태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앞으로의 아리랑시장의 비전과 해결할 과제를 들어보았고 아리랑시장에서 청년들이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정릉야책>은 항상 눈과 귀를 열어 성북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성북에서 활동하는 연극인과 동화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예술과 삶 그리고 마을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다른 마을 잡지들과 비교해서 <정릉야책>이 자랑할 수 있는 코너는 바로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일 텐데요, 주민들의 일상과 그 안에서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에세이들이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정릉도서관의 글쓰기 동아리 ‘글림’에서 세 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글인지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평범한 어느 날 기적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지, 기적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캠핑 초보자의 좌충우돌 캠

핑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학 이야기, 운동 오지라퍼 이야기, 무작정 떠나는 여행기인 ‘~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뜬금 여행기와 야책문학 코너에 실린 소설은 지난 호에 이어 연재를 계속 진행합니다. 같은 작가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호에 이어 노동법 이야기도 계속 됩니다. 이번에는 노동자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들 삶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할 때가 있으시죠? 차의 역사와 우리 도자기에 대해 알아보는 차 이야기와 블라디보스크에서 독립운동가 이상설, 최재형 선생님의 흔적을 만나고 온 역사탐방 이야기도 흥미 있습니다.

이외에 호박이닝쿨딩쿨이 지난 여름에 팟캐스트에 도전을 했는데, 그 때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디제이로 녹음을 마치고 이제는 책방의 주된 식구가 된 심 디제이의 호박이닝쿨책 기행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맛깔 나는 유머가 끊이지 않는 글을 통해 호박이닝쿨딩쿨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이미지가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 동아리 ‘여행스케치’가 예쁘게 그린 성북의 도서관 스케치를 잡지에 신게 되어서 잡지의 볼거리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행스케치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콜라보 작업도 기대해봅니다. 점점 두꺼워지는 <정릉야책>을 보며, ‘다음 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다음 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작가가 될까?’ 희망 또한 더욱 두터워집니다.

동네사람들!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다음 <정릉야책>도 더욱 두껍게 함께 만들어 봐요!

- 편집부



3 들어가는 말 편집부

시시콜콜

별일없이

산다

- 9 김진태회장님에게 듣는 아리랑시장 김정훈
14 공유주방 빙그레식탁을 아시나요? 문지원
21 한결같은 열정의 또 다른 이름 김가희
29 책과 아이들로 맺어진 관계 남경순

스스스스

마음을

스치다

- 36 나는 기적을 만났다 클라라
41 나를 비춰주는, 매일 쓰기의 힘 권남옥
44 일상의 행복 : 세 편의 짧은 이야기 김채영
49 마을 in 놀·일·터 정다운
53 내게 온 다섯 번째 봉인 실 오영주
56 칭따오를 찾아서 채종현
62 캠핑의 시즌이다 허광석
67 호박이닝쿨책 기행기 심재빈

- 80 소나무집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 이연수







시시콜콜
산다
별일 없이

김진태 회장님에게 듣는 아리랑시장

김정훈

호박이닝쿨책-야책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아리랑시장(정릉역2번출구) 입구였는데 바로 옆집이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었다. 그 덕에 상인회에 가입하고 회장님과도 관계를 맺었으나 오며가며 인사나 나누는 정도 말고는 회장님과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는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김진태 회장님과 호박이닝쿨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인연이 있었나 보다. 재작년말에 상인회 사무실이 먼저 이전을 했고, 작년 4월에는 호박이닝쿨책 또한 이사를 했는데, ‘엇,’ 이번에도 역시 상인회 사무실이 바로 책방 옆집이었다. 상인회 사무실은 회장님댁에 붙어있는지라 작년부터는 더 자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회장님 또한 책방 행사에도 한두 번 참여를 해주시고 책방회비도 내주셨다. 나 또한 자연스레 책방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회



장님께 알리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의 만남
까지 마련된 것 같다.

아리랑 시장의 과거

상인회 회장님이시니 자연스레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얘기가 시작되었다.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리랑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는 본래 금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는데 전쟁 후 그 개천가로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형성된 시장은 나중에 분구되기 전의 성북구 (지금의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아우르는 넓이)에서 돈암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되었단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도 말씀해주신다. 개천은 나라에서 덮은 게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 덮은 것이라고. 즉 지금의 도로 위에는 원래 아리랑시장의 점포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아리랑시장과 비교했을 때 당시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가는 대목이다. 시장이 그렇게 컸었던 얘기는 장사도 무척 잘 되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당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2년마다 집 하나씩 못 사면 다들 바보라 했다”는 회장님 말씀에서 당시의 시장이 얼마나 크고 활력이 넘쳤을지 조금 더 상상해본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즈음 우리나라



라의 왕릉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 내건 조건 중에 ‘능 들어가는 길을 넓혀라’는 조항이 있었고 2009년 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점포들의 땅들을 수용하여 길을 넓히면서 현재의 도로가 만들어졌단다.

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그렇다면 ... 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지금의 도로를 막아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자, 회장님은 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아리랑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는다. 이미 회장님이 이뤄낸 것부터 소개하면 아리랑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시킨 것이다.

“전통시장 등록이 어려워요. 우리보다 훨씬 큰 시장들도 등록까지 5년 정도 걸렸다는데, 우리는 3개월 만에 했어요. 제가 구청직원들과 출퇴근 같이 하며 아예 구청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필요한 서류들 있으면 그 때 그 때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했어요.”

이 정도로 열정이 센 사람의 인생은 또 어땠을지 궁금해졌지만 일단 시장 얘기를 더 들어본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회장님은 이런 지원금으로 이 곳이 시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홍문과 같은 조형물을 세우고 시장 점포들의 간판을 통일성 있게 교체하는 일을 진행했다. 앞으로 우회도로를 확충하여 지금의 시장 길을 막고 시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시단다. 그렇게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회장님은 최종적으로 이 아리랑시장이 먹거리장터로 기능하길 바란다. 흥미로운 대목이다. 마을에 접근이 쉬운 먹거리장터가 만들어진다니!

회장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을 넘어야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회장님 말

에 따르면 특히 시장 조형물 설치나 우회도로를 내는 문제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차를 몰고 지나던 시장 길이 막히니 그럴 것도 같지만, 회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라면 외려 교통이 더 편해질 것도 같다. 하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워낙에 열정이 강한 분이래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계속 소통해나가며 일정한 합의를 이뤄내시기에 분명할 것이기에.

그나저나 회장님은 왜 이리도 어려운 일을 계속해나가는 것일까? 즉 상인회 회장이라는 업무가 고생스럽진 않은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종의 시장상인회 준비위원회가 2011년에 결성되었는데, 그 모임이 정식 상인회까지 이어지질 못 하고 있었단다. 그러던 중 당시 지역의 정치인과 주민들이 김진태 회장님이 그 모임을 맡아서 상인회까지 만들어내길 강권했다고 한다. 당시 강권했던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은 좋았던가 보다. 김진태회장님이 모임을 맡은 후 바로 상인회가 결성되었다. 2013년에 발족되었으니 꽤 오래 동안 직을 유지하고 계시나 아직 회장님만큼 회장으로서는 상인회에 열정을 쏟을 사람이 없나보다.

인간 김진태

열정에는 사실 개인의 희생이 따른다. 시간은 물론 돈까지. 지난 추석을 비롯하여 아리랑시장에선 매해 명절마다 이런저런 행사를 벌이는데, 공연예술인들의 개런티를 비롯해서 회장님의 부담도 만만찮은 듯하다. 상인회 회원들께 그만두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었다니 실제로 마음의 고심도 많으신 것 같다. 하지만 2016년에 여러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여 진행한 상인대학 과정을 이수한 상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들 속에서 상인회 사무장을 맡아 회장님

을 열심히 돕는 회원도 나오는 것을 보며 많은 힘을 얻으시기도 한단다.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이 보다 발전해간다는 말씀에 회장님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짝하다.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회장님의 개인사 또한 궁금치 않을 수 없다.

개인으로서의 회장님은 유도인이자 검도인이며 또 한편 음악인이기도 하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아들 셋 또한 모두 유도자들이라 회장님 집안 남자들의 무술 단수가 수십 단이란다. 무술로 단련된 정신과 몸이라 그런가? 젊은 시절부터 회장님은 여러 사업에 호방하게 뛰어들어 나름 큰 성공도 거두고 또 그만큼의 배신과 실패도 겪었던단다. 시련의 시절마다 회장님은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랬다며 그 시절 썼던 시들을 몇 편 낭송해 주시는데 시심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다. 젊은 시절 탁월한 기타실력 덕에 신중현에게 발탁된 애기부터 (요즘도 성인들을 가르치는 음악선생님이시기도 하다) 시골 중학교에서 바닥을 치던 학생 여섯을 한학기만에 전교 1등에서 6등까지 차지하도록 지도했던 과외선생님 시절의 얘기도 어찌나 재미있게 들려주시던지 ...

지면의 한계상 그 모든 얘기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끝으로 열정 넘치는 김진태회장님과 함께 아리랑시장도 발전하여 점포가 150개나 되었다던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길 바란다. 더불어 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시장이 죽으면 지역도 죽는다는 회장님의 말씀처럼, 아리랑시장과 함께 우리 동네 정릉도 더더욱 활력 넘치는 동네가 되면 좋겠다.

공유주방 빙그레식탁을 아시나요?

빙그레식탁 운영자 임새벽을 만나다

문지원

‘빙그레’라는 단어는 오묘하다. 마치 처음부터 미소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하는 이의 입가를 올리고 마음에 방긋한 웃음을 실어다준다. 그래서일까, 정릉의 <빙그레식탁>에 대해 들었을 땐 어딘가 아늑함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자연스러웠다. 빙그레? 1차원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노란색 단지 우유가 떠올랐다. 이 고루한 유머를 시도할지 말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동명의 바나나 우유 한 팩을 사들고 그를 만났다. 임새벽. 그는 정릉 빙그레식탁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새벽입니다. 정릉 2동 주민이고, 주민이 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릉에 있는 빙그레다방이라는 곳에서 <빙그레하루>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기획자로 활동 중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획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셨나요?

딱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알고 있는 직업군도 많지 않으니까,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등의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창의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창작의 연장선을 걷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참 많아요! 빙그레다방, 빙그레식탁, 빙그레하루, 빙그레의 산하가 굉장히 많잖아요. (웃음)

빙그레다방은 사무실이자,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빙그레다방에서 처음부터 ‘빙그레’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나머지는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빙그레식탁은 공유주방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모두 여행 같은 일상을 꿈꾸는 팀원들인데, 팀 이름을 찾다가 빙그레하루로 짓게 되었습니다.

빙그레하루라는 팀에 대해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 멤버들의 닉네임은 다 자연에서 왔어요. 바다, 산, 산들, 햇님, 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다 쟁쟁한 사람

들일 텐데 했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모여서 처음 얘기를 나눠보니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릉에 있는 공유주방을 기획해서 운영하라는 프로젝트를 받았죠. 처음부터 공유주방이라는 형태를 생각한 건 아니어서 막막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공유주방을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 공유주방을 하라고 했을 때 ‘대체 누가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요조사를 해도 의미가 없었죠. 공간과 위치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사례를 찾아다녔어요.

팀원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팀원들은 프로젝트를 결성할 때 모여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이하 ‘뉴딜’) 공고를 통해 지원했죠. 회사를 무작정 뛰쳐나오고 방황할 때였어요. 제가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곳은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고를 하는 수단도 정해져 있었고요. 뉴딜사업에는 직무관련 교육 후에 일자리 연계까지 되는 게 있는데, 광고를 배우고 싶어서 뉴딜에 신청했고 배워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흥미롭네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족하셨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웃음) 다만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 뉴딜로 인턴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뉴딜 사업은 뉴딜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차원에서는 인턴비용을 지원 받는 거예요. 서울시가 비용을 대죠. 인턴에게는 기회를, 회사는 사원 교육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교육받은 인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회사는 명목상 뉴딜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인턴이 원하는 직무의 일을 주지 않고 그냥 알바처럼 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업차원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뉴딜을 인턴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활동 중이지 않아요. 명칭이 굉장히 멋진데요. 청년 활동가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활동가영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의 뉴딜 형태는 현장기반형 뉴딜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공간을 운영하고 실무를 겪어보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어요. 약간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뉴딜의 형태라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식탁 공유주방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나요?

사실 공유주방으로 사업형태가 이미 결정된 채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기획하는 거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반영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요새 공유주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운영관점에서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요새 파티룸 같은 게 인기를 끄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싱크대나 조리공간이 생김으로써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지 않나. 그래서 수요도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빙그레 식탁은 어떤 곳인가요? 공간소개 부탁드립니다.

빙그레식탁은 아리랑시장에 인접해있는 공유주방이고요. 컨셉은 정원으로 꾸몄어요. 시장 안 정원이 있는 식탁. 그런데 아직 식물들을 많이 못 심었어요. 지금은 정원보다는 아파트 베란다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웃음) 2층에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시네마쥬,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영화관 느낌으로 꾸몄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앞에 2층 다락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옆에는 폭이 큰 4인용 원목식탁이 있고, 식탁은 양 끝에도 앉으면 6인용쯤 되겠네요. 그리고 싱크대가 기억자로 있죠.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은 천장이 좀 낮은데, 낮은 천장을 커버하려고 천을 활용했어요.

정원 컨셉은 어떻게 나왔나요? 다들 풀을 좋아하나 봐요. (웃음)

네. 다들 풀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나무를 많이 써서 나무를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식물, 하다가 정원. 또 거기가 앞이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커튼을 좀 걷어두고, 사람들이 보는 안의 풍경이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빙그레하루팀에서 미래에 계획하신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투어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릉에서 버들잎 축제를 했는데, 거기 투어프로그램 기획을 저희 팀에서 했어요. 투어를 무사히 마쳤고, 11월 둘째 주부터 전시를 할 예정인데, 아마 식탁에서 굿즈 같은 것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안내 데스크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건, 정릉에 사는 주민 분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을 모아 쿂� 클래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버들잎 축제를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정릉을 기록하시는 분들과 전시기획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척 재미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빙그레식탁 대관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관은 평일 2인 기준, 한 시간에 10,000원. 주말 12,000원입니다. 인원이 추가되면 인당 6,000원씩 붙어요. 공간의 이용형태는 파악 중에 있는데, 여러 형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독서모임이 있으면 대관료 할인 등을 해 줄 수 있겠죠.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쪽은 지원을 좀 하려고 해요. 대관예약은 네이버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가능합니다.

요새는 거의 빙그레식탁에만 매달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나요? 요즘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모임 말고도 여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청년공론장 모임도 하고 있죠. 정릉권역에서 하고 싶은 건, 청년들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청년 기자단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기자로 잡지를 출간하고 어떻게 유통시킬까에 대한 방안을 찾는 중

이에요. 최근 정릉 네트워크를 접하고 알게 되어서 다양한 곳들을 찾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호박이 텃밭책도 그 중의 하나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쯤에도 정릉에 계속 계신다면, 굉장한 유명인사가 되실 것 같네요. (웃음) 그런 의미에서 20년 후의 임새벽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게 때로는 벅찰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힘을 잃지 않고 20년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랬다면 그런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 때도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새벽에게, 빙그레-란?

빙그레하루가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빙그레식탁은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호박이 텃밭책은 아직 온 지 한 달도 안됐는데요. (웃음) 책방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제 색도 책방에 물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의 수다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하루가 빙그레 웃는 때가 되었다. 날은 추워졌지만 따뜻한 하루는 여전하듯이, 남은 사업기간 동안 빙그레하루팀은 계획한 많은 일들을 실현시키며 나아갈 것이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개인 임새벽과 프로젝트팀 빙그레하루, 공유주방 빙그레식탁 모두 동명의 어떤 우유의 것처럼 달콤한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한결 같음은 열정의 또 다른 이름

연극인 차지성을 만나다

김가희

지난 3월 호박이닝쿨책 낭독 팀은 처음으로 극장에서 유료 공연을 올렸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극장 대표 찬스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장 봄 대표이자 극단 더늠의 차지성 대표를 크고 작은 낭독 공연이 잡힐 때마다 불러서 우리 하는 것 좀 봐 달라고 조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마추어들 끼리의 모임인 책방 낭독 팀은 동네 도서관이나 축제 등에서 공연할 기회들이 늘어났다. 그럴 때면 공연을 앞두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차 대표에게 와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다. 무리한 부탁에도 차 대표는 기꺼이 시간과 열정을 내서 우리가 생각한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서까지 배우 한 명 한 명의 연기를 끌어내주곤 하였다.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 연기를 하면 나를 잊고 극 중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다. 그는 누구나 배우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신기하고 대단한 연출가다. 그런 차지성 대표를 정릉야책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안녕하세요. 극단이 곧 20주년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극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북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나요?

2001년도에 극단을 시작했으니 20년이 다 되 가죠. 그 때는 대학로에 있었어요. 2005년에 성북으로 왔고 2011년에 지금 자리에 터를 잡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20대 중후반의 어린 친구들이었죠. 그 당시 극단에 들어가면 청소하고 포스터 붙이고 ...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서 우리끼리 극을 올려보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극단 더듬의 대표이신데 ‘더듬’의 뜻은 뭔가요?

더듬은 “더 놀다”라는 뜻이에요. 국악 용어인데 선생님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를 일컫는 말이지요. “너의 더듬이 뭐냐?” 하고 물으면 “춘향가의 ~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기존의 소리를 새로 짜거나 추가해서 그것을 뛰어 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 더 배우게 되네요. 연극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여름방학에 보충수업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서 보충수업 할래? 극단가서 놀다올래? 하셔서 그길로 “다녀오겠습니다.” 했죠. 아동극에 배역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극단에 기웃기웃하다가 고 3 때가 되었는데 극단이 없어졌어요. 놀러갈 때가 사라진 사건이었죠. 연극이라는 걸 해 보고 싶었는데 극단이 사라지니까 연극영화과는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로 진학했는데, 결국에는 연극 동아리를 추천받아 연극을 하게 되었죠. (웃음) 배우로 시작해서 연출도 가끔 하다가 지금은 연출과 극작이 중심이 되었어요.

제가 차 대표님 극을 여러 편 봤는데 대본이 좋아요. 글을 참 잘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글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글 쓰는 거를 배우지 못해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때 모든 구성은 다 끝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구성 카피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문창과에서 하는 방법이라구요. 작품을 베껴서 쓰기도 해보고 …, 모든 창작의 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구성을 했지?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선생님이로 모시는 분이 박근형 선생님이신데 대본을 몇 번 달라고 해서 가져가면 나중에 “술이나 마셔.” 하셨어요. 그렇게 단련이 되었죠. 칭찬 받는 게 어색한 성격이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강하게 큰 거 같아요. 제가 말썽을 엄청 부려서 혼나면서 컸거든요. (웃음)

성북구 주민이면 한용운 선생님을 그린 뮤지컬 <심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 많은 창작극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작품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를 꼽자면 <쇠점터 : 가난에 관하여>라는 작품인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쓰기 시작한지 7~8년 되었는데 묵혀 놔다 다시 쓰고 그러다 덮어 놓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대본을 쓰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본 작품인데, 노인정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놀랐어요. 주입식 교육과 ‘똥이 장군’을 보면서 자란 세대로 북한은 다 늑대고 남한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에서 멀리 못 갔다고 해요. 국군을 따라 큰 길을 가면 뒤에서 북한군 탱크가 오고, 그런 식이었는데, 북한군이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나눠줬다고 해요, 실제로 미군 비행기가 제일 무서웠고 미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어떻

게 보면 엄청난 죽음들을 마주했지만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 원망할 상대가 모호한 죽음들과 가난이 존재했던 거죠. 가난의 문제를 시대상에 녹여보고 싶었는데 페이지만 늘어나고 공연도 못 올리고 …. 우리는 왜 가난할까? 물질적인 가난만 가난일까? 사상적 가난? 세대 간의 가난? 상대적 가난? 등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쇠로 만든 조형물 속에서 꺼져가는 불을 봤는데 대장간의 마지막 불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장간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다가 대장간에 관해서 써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가난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갔어요. 먹을 것 없는 전쟁 중에 부산에 제일제당이 생겼다고 해요. 설탕 애기를 같이 녹여내서 … 빈곤과 설탕이라는 달콤함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힘을 쓰며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물건과 상업적인 달콤함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담고 싶었어요.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상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쇠점터>를 쓰면서 내가 배운 역사와 실재가 너무 달라서 화가 났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에는 역사나 시대에 대해 뒤집어 보게 되었어요. 역사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 시대를 생각하게 되고, 경제, 정치와의 연관성이나 미국 정치나 세계정세도 바라보게 되고 자본이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도 공부하게 되고요. 쓰면서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실수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고치죠.



이십 대 때와 비교해서 연극하기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힘든 건 똑같은데 배우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극단이 아니면 공연할 곳이 없었죠. 극단 시스템이니까 극단마다 자기 성격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극단 시스템이 무너져서 큰 극단을 제외하면 1인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여요.

연출가나 극작가 중심으로 몰리고 개인프로젝트가 많아졌죠. 예전에 한 작품을 세 달 이상 올린해서 준비했다면 요새 배우들은 세 달 준비는 같아도 2~3개 작품을 같이 하니까 작품의 질은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전문 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고 대신 시민연극 등의 시민 예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어요. 시민 예술도 중요하지만 평준화가 되면 깊이 있는 작품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 예술과 전문 예술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해요. 대학로도 기획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중견단체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극단들이 많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북구 주민들과 연극으로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장수마을 주민들과 연기도 해보고 구민회관 입주단체로 주민들과 접점을 찾기도 했어요. 장위동 주민들과 시민 연극 교실도 했죠. 극단이다 보니 예산 부분이 많이 힘들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쉬워요. 마을살이 연구도 진행해봤어요. 삼선동의 연습실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하려고 기초조사를 했어요. 생각한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작은 성과 하나라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시민극단은 즐겁게 하는 것과 작품 결과 사이에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극단은 힘들어도 작품이 잘 나오면 고생했다는 한 마디에 다 풀리는데 시민극단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을 버텨내야 하는데 쉽지 않죠.

차 대표님이 생각하는 연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인데 연극의 매력은 소멸에 있어요. 무대에 서 순간 살고 사라지는 것, 순간성이기도 하죠. 영상으로 남긴다 해도 그 맛을 느낄 수는 없어요. 추억이 될 수는 있지만 무대 위에서의 순간의 연기는 사라지는 거죠.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 순간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매력이 예술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관객과 만나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고흐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도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술성을 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토대로 해야죠.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 그런 점에서 예술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남은 올해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을 위한 극을 올렸어요. 3시 공연인데 11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에게 약속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노인들도 약속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22일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계훈제 선생님이 기부해서 만든 극장에서 제 1회 연극제가 열리는데 4.19에 관한 극 <시선>이 초대받았어요. 12월 25일에는 단원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로 리딩 공연을 할 거구요.

그리고 극단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되돌아봄, 바라봄, 내다봄이라는 세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훑고 있는 단계예요. 창작극 준비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극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은 <왕을 바라다>가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극이죠. 극단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갈지 준비하는 단계예요.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연극계 미투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시겠어요?

연극계에 몸 담고 있는 연출가로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일찍 터졌어야 하는데, 예술이 사회나 IT에 끌려가는 꼴이라 안타까워요. 예술가들이 먼저 말하고 앞서 나가야하는 데 오히려 뒤떨어지고 사회현상을 못 따라가는 게 문제죠.

인간 차지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게으르고 이불킥을 많이 하죠. (웃음) 왜 이렇게 살았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매일 밤 이불킥을 많이 해요.

20년 후에도 계속 공연하고 싶어요. 연극은 생각도 깨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일이에요. 머리가 안 굳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죠. 사회에
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예술은 자기와의 경쟁이 제일 크
니까요.

책방이나 낭독극 멤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처럼 이어가면 좋겠어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도 시작하면 좋겠
구요. 희곡을 읽는 것은 간격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재미에 빠지면
못 빠져 나와요. 그 재미에 푹 빠지시기를 바라요.

그의 연극 이야기, 인생 이야기에 푹 빠졌다가 나온 즐거운 시간이었다. 농담처럼 던
지는 그의 엉뚱한 말 속에서 선문답처럼 써 있는 그의 성찰이 느껴진다. 안 해본 알
바가 없다며 들려준 그의 알바 경험담에서부터 청년, 노동, 예술 정책, 그리고 예술
관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의 건강한 세계관이 느껴져 자신 만의 길을 잘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의 길이
지금보다는 좀 더 평탄하길 바란다.

책과 아이들로 맺어진 관계

동화작가에서 도서관 관장, 마을활동가가 되기까지

남경순

신이문과 석계역 사이, 아파트를 낀 상가에 자리 잡은 〈책놀이터작은도서관〉은 7년간 동네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다. 이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부재하는 지 아는 사람이라면 〈책놀이터작은도서관〉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는다. 백은하 도서관 관장은 〈책놀이터작은도서관〉과의 멋진 이별을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책놀이터작은도서관〉과의 멋진 이별

백은하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석관동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새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와 자녀의 육아를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도서관. 이제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어 도서관에 더 이상 오지 않지만 또 다른 아이들이 이곳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다.

“되돌아보면 도서관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다 그렇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어려울 때면 도와주는 이웃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연명하듯 도서관을 운영해 왔어요.”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도 아쉽다는 생각은 못했다. 정신 없이 새로 입주할 사람을 위해 공간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면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종료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토요일 종암동에 새롭게 생긴 <느린학습자 마을배움터>에 책을 기증하고 나서 도서관의 찢든 때를 닦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 찢든 때에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탓일까?

세계를 확장시켜 준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도서관은 저의 세계를 넓혀줬어요. 물론 예전부터 책과 도서관을 무대로 활동은 해왔지만, 그때는 작가로 초대받거나 강사로 갔었는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두 책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죠. 책을 가운데에 두고 살펴보면 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강사도 있어요. 그리고 독서동아리가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죠. 저는 책과 관련된 아주 작은 세계에만 살았던 거였어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을과 연계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나 강사로 도서관을 갈 때면 대우를 받곤 했는데 여기서는 대우는커녕 저를 내려놓고 아이들, 주민들, 마을활동가들과 조율하고 맞춰야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안 했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처음 1, 2년 동안은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3년이 넘어서니 이 활동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좋은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미희, 안혜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림책 동아리 어머니들은 힘들 때마다 큰 의지

가 됐어요. 도서관 운영을 멈추더라도 이분들과 도서관 활동은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시상식 수상 소감을 말하듯 그녀의 입에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어려울 때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도서관 운영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이별을 잘하고 싶어 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새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상처를 안고 도서관을 운영했는데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해준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요

백은하 관장은 200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백은하 작가는 지금까지 25여 권의 책을 썼다. 글을 쓰기 위해 직



장을 그만두고 결혼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글은 꾸준히 썼지만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늘 목마름이 있었다. 도서관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로서의 본능이 되돌아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첫째 아들과 조카가 중학생이 되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시작한 도서관이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틈새 돌봄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체력적으로도 지쳐있었고, 특히 한창 바쁜 방학이 끝나고 나면 무기력해지기 십상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지난해 10월 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공모를 봤어요.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백은하 작가는 지난해 11월 답십리 도서관 상주작가에 선정됐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며 개인 작업공간을 지원받았다.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있으면 책 읽기도 힘든데 상주작가로 머무는 7개월 동안 하루에 한 권씩 반드시 책을 읽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대로 첫 달은 책만 읽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온 힘을 다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완성된 글을 출판사에 보내도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기획 동화는 꾸준히 의뢰받아 썼고, 개인 창작 작업도 이어왔는데 출판사에서 “작품은 좋은데 요즘 트렌드가 아니네요”, “저희와 맞지 않네요.”라는 답을 들을 때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작가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썼어요.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간절히 바랐어요.”

그녀는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일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야 한다고 했다. 그냥 바라는 것은 안 되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고 했다. 그 절실함 때문일까 4월부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연이어 4권의 책이 계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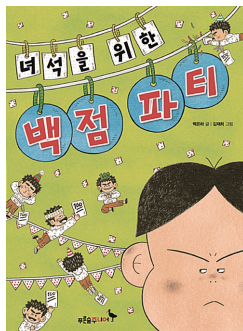
일상의 이야기를 동화로 완성하는 백은하 작가!

백은하 작가는 항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다보니 아이들한테 얻는 영감이 많아요. 젊은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항상 아이들과 만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앉아있으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귀담아듣고 재미있는 부분은 메모를 해요.”

그녀의 두 번째 작품 <당당해질거야>는 젊은 시절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소식을 주고받았던 아이에 대한 애정이 책으로 이어졌다. 동갑인 아들과 조카와 관련된 책도 있다. <너석을 위한 100점 파티>는 성적이 좋았던 아들과 다소 그에 미치지 못했던 조카의 성적을 둔 질투와 갈등을 다룬 이야기이다.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백은하 작가의 이야기가 친근하고 매력적인 이유이다.



동화작가에서 도서관 관장, 마을활동가가 되기까지

도서관 운영을 마무리하는 내년 2월, 백은하 작가의 계획이 궁금했다.

“2월까지의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딸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딸에게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3월이 되면 계약한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책도 열심히 알리고 작가와의 만남도 자주 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써야죠. 그렇지만 도서관과 함께한 사람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백은하 작가는 석관동 토박이로 오랜 기간 동네에서 산 동화작가이다. 한 명의 작가가 책을 매개로 하여 도서관 관장이 되고 마을활동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작은 도서관이 한 개인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여실히 알게 한다.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된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내년에는 석관동을 배경으로 한 동화와 함께 작가로서 그녀를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나는 기적을 만났다

클라라

나는 기적이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것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적도 없었지만 그다지 기적을 바랐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내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유일한 기억은 어린 시절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였다. 학교에서 단체로 이루어졌던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던 바로 그 때, 난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져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무더운 여름날 학교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느라 전교생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을 때 몸이 약한 학생 한 명 정도는 꼭 ‘픽~’ 하고 쓰러져 그늘이나 양호실로 옮겨지고는 했었는데 그 상황을 목격할 때면 그 학생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절을 했다는 사실을 그저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다. 주사 맞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 가녀린 학생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픽~’ 하고 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하게 바랐지만 나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 이후 나 또한 나에게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것, 즉 기적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희망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런 내가 드디어 생애 처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때는 2019년 여름, 7월말의 어느 날이었다. 장마 기간이라 특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학교 열람실의 내 자리엔 우산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고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이나 학교에 가서도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곤 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평일에는 매일 학교를 나갔지만 주말은 주로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갔다. 아마도 전날인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아 내 자신이 너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을 나서기 전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 오후

3시나 4시쯤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일기예보는 정확했다. 3시와 4시 사이에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혼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가기가 쑥스러워 정확히 7시경에 마무리를 하고 학교를 나섰다. 비온 뒤 공기는 상쾌하고 하늘도 꽤 맑은 편이었다.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학교 후문을 지나갈 때 짙은 물방울 하나가 내 위로 툭 떨어졌다.

어~ 비? 하늘을 보니 구름이 별로 없는 듯하여 ‘설마’ 하며 계속 걸어 가던 중 10여 미터 쯤 갔을 때 또 빗방울이 툭 떨어졌다.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고민을 했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학교로 돌아가 우산을 가지고 와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도 발걸음은 계속해서 집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불과 몇 미터를 이동했을까 갑자기 우두둑 쏟아지는 빗줄기에 당황해 내달리기 시작했지만 비를 피할만한 장소는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에 바짝 몸을 붙이고 겨우 한 뼘 정도 되는 처마 같지 않은 처마 아래 몸을 피해보았지만 바람과 함께 거세게 몰아치는 빗줄기로부터 나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처에 비를 피할만한 장소를 떠올려보면서 빗속을 질주하다 근처 산책로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정자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얇은 재질의 천으로 된 옷은 그사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나를 민망하게 만들었지만 다행히도 줄무늬와 꽃무늬가 있어 내 몸이 적나라하게 비치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나뿐만 아니라 길을 가던 행인, 산책을 갔던 사람들, 둘레길 등산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정자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모두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잠시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우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든 떠나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비를 조금 맞더라도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이 보였다.



내 몸 하나라면 나도 비를 맞고 집에 가서 씻으면 그만이었겠지만 예코백에 들어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걱정되어 선뜻 길을 나설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어느덧 정자 밑에는 나만 홀로 남겨져있었다. 비는 멈출 김새를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난감하고 막막한 기분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홀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안으로 집에는 갈 수 있을 것인가’ ... 애타는 마음을 안고 나는 하늘을 또다시 올려다보았다. 그때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났다. 황망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올려다 본 내 눈앞에 기적처럼 우산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정자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잇는 가로로 놓인 대들보 위 조그만 틈새 사이에 기다란 장우산이 고이 접혀 얹혀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우산을 내려서 쓰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상하고도 신기한 느낌에 젖어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 초자연적인 일,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일 등의 믿을 수 없는 현상들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이날의 경험으로 기적이란 우리 주변의 사사로운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절실한 무엇인가를 꼭 필요한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만난 이런 기적은 우산을 그곳에 가져다 놓은 누군가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에서 만들어지는 기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의 의미 있는 행동이든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한 행동이든 인간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 우산의 원래 주인은 우산이 낡고 오래되어 그곳에 내다버린 것인지

도 모른다. 우산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버리기가 쉬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몰래 가져다 버렸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그 우산 주인의 애초 행위가 불순했는지 건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위가 나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이처럼 누군가의 한 순간의 행위가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주었듯이 내가 한 소소한 어떤 행위가 어떤 누군가에게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를 비춰주는, 매일 쓰기의 힘

권남옥

“성공이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아는 일, 자신이 원했던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 조지 쉬언, 『달리기와 존재하기』 중에서.

의사인 조지 쉬언은 40대의 어느 날 의사라는 직업에 염증을 느끼고 대학교수가 되고자 한다. 그는 대학에 지원동기를 솔직히 적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신물이 나서 다른 일을 찾고 있다.”라고... 예상한대로 교수 자리를 얻는 것에 낙방한 조지 쉬언은 달리기 시작한다. 취미로서의 달리기 아니라, 지루한 인생을 걷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에게 달리기는 수단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는 건강을 되찾거나 살을 빼거나 유명해지고자 달리지 않았다. 그저 달리는 행위 안에서 삶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했다. 달리면서 고통을 느끼면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리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식단을 조절했고 생활을 바꿨다. 더 강하게, 더 힘차게, 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달렸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달린 그는 진정 달리기의 예술가이다.

조지 쉬언은 달리면서 자신과 대면한다. 창조주 신을 만나고 신이 만든 만물에 경탄한다.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싸운다. 그에게는 마라톤 완주 기록이나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인, 자신의 한계에 맞서서 달렸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달렸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지프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듯이 그는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그는 달리면서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나는 매일 달리지는 않지만 매일 글을 쓴다. 줄리아 카메론이 『아티스트웨이』에서 제시한 모닝페이지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 페이지의 글을 쓰는 것인데, 이른 시간의 글쓰기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 올리는 힘이 있다고 한다. 나는 오전에 할 일을 마치는 대로 글을 쓴다. 줄리아 카



메론의 말대로 세 페이지의 글을 쓰는 동안, 내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 나온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요즘 마음을 뺏긴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 사람들, 경험이 줄줄 나온다. 무엇을 쓸지 정해두고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정해두고 쓰더라도, 쓰다 보면 마음 가는 대로다. 세 페이지의 글을 채우며 훌륭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늘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라! 상담을 가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마음을 묻는다. 마음에 올라오는 사건이 내담자가 다루고 싶은 문제이고 해결이 필요한 일이다.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긴다. 모닝페이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글쓰기지만 그 글을 바라보는 나는 글을 바라보는 타자가 된다. 타자로서 글을 바라보기 때문에 ‘글을 쓴 나’와, ‘글을 읽는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은 객관성을 가져온다. 글을 쓸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보인다.

조지 쉬언이 달리기를 통해 자신과 대면했다면 나는 모닝페이퍼를 통하여 나를 만난다. 모닝페이퍼를 쓰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평소 자신의 마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닝페이퍼는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데에 효과가 있다. 얼마 전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한밤중에 다이어리를 꺼냈다. 세 페이지는커녕 한 페이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덮어 버렸다. 밤에 쓰는 글은 후회와 한탄으로 채워지기 쉽다. 아침나절에 쓰는 글은 그 날의 이정표가 되어 주지만 밤에 쓰는 글에는 아쉬움이 드리운다. 그래서 모닝페이퍼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각에 쓰기를 권한다.

종이 세 장과 펜 한 자루만 준비하라. 그리고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조각 시간이나마 당신에게 허락하라. 아무 말 대잔치도 좋다. 세 페이지가 당신의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마음의 평온이 고개를 들기를 … 내밀한 마음 가운데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일상의 행복

세 편의 짧은 이야기

김채영

일거양득 = 일타쌍피

“엄마, 감자 삶아 주세요!” 기쁨이의 주문. 엄마도 좋아하는 찐 감자! 기쁨이는 엄마 닮았구나! 엄마는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좋아. 엄마는 친 할머니랑 시골서 살 때 가마솥 안에 자잘한 찐 감자가 간식거리였어. 동네 아이들과 땅 따먹기, 자치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등의 놀이를 하다가 언젠든 들락거리며 솥뚜껑 열고 먹었던 “동글동글 조그만 감자”가 아직도 생각나!

압력솥에 찌야 맛있지! 감자를 찢고, 껍질을 벗기고 삼발이를 찾는데 어, 어디 갔지? 삼발이가 안 보여! 냄비에 삶을 수도 있지만 압력솥에 찌야 더 고슬고슬 맛이 최고인데, 어찌지?

아이들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설거지를 하던 엄마 등 뒤에서 기쁨이의 한마디가 엄마를 두고두고 웃게 만들었다. “엄마가 우리들 중 한 명을 애완동물로 키우시려나봐. 애완동물 영양제를 사오셨어!” “응?” “엄마가 놀라 뒤돌아보니 식탁 위에 얼마 전 워크숍에서 받아온 사은품 중 하나인 애완용 영양제가 있었나보다. 그걸 본 기쁨이의 멘트는 웃음기 없었지만 엄마는 지금도 혼자 생각하며 혼자 웃는다.

잠시 후엔 찐 감자를 먹기 위해 압력솥 뚜껑을 열어 본 기쁨이가 땀 터졌다. 삼발이 대신 엄마가 사용한 대용품을 보고난 후의 반응이었다. 엄마가 삼발이 대신 사용한 것은 ‘쿠키틀’이었는데 “그게 웃겨?” “응, 웃기고 귀여워!” “그런가?” 엄마는 “감자를 압력솥에 찌고 싶고, 삼발이는 안보여서 말이야.” 오늘 기쁨이 덕분에 서로 웃고 글도 쓰게 되었는데. 고마워 기쁨아!

배달의 민족(배달 앱) 정착기

64년생 마늘 떡볶이 여사장님이 외동딸 음대 생활을 돕기 위해 빠르다

할 수 없는 투 잡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과 눈물을 자아낸다. 치열한 삶이 주는 구슬픔과 웃음을 맛보게 하기에 나는 그 곳에 잠깐씩 들리곤 한다. 하루는 설거지를 돕고, 하루는 떡볶이, 순대, 어묵 접시를 손님 테이블에 서빙하고, 어떨 때는 집에 있는 둘째 딸 기쁨이의 스머프 인형을 좋은 위치에 가져다 디스플레이해 놓는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배달민족(평화민족, 침략의 경험이 없는 나라)이므로 배달의 민족? 배달 이용료는 삼천 원! IT강국이니까! 배달은 필수! 인구 과밀 동네이므로! 앱 가입도 필수! (필수는 홈쇼핑 마감시간 때 많이 듣던 멘트 아닌감.)

배달 주문 시 배달 가격과 홀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보통 배달료는 주문자에게 부담될 수도 있음을 참고바람. (경우에 따라 다르거나, 개인적인 사견임)

“땡 동~! 배달의 민족, 주~!문~!”(여성음성)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외치면 여사장님은오케이와 도착 예정시간(기본이 40분)을 클릭한 후 요리와 동시에 배달원 섭외를 한다. 카드결제는 앱에서, 현금결제는 배달원에게 선입금을 받는 형태이고,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 잠시 지켜 본 앱을 통한 배달의 세계는 아직 정착 중이었으므로 작은 에피소드들로 넘쳐났다.

에피소드 1

앱에 ok가 안돼서 취소.

전화로 주문받고 주문자의 취소 문의 전화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취소할 수도 있지요.”



“네? , 제 꺼 취소된 거예요? ”

에피소드 2

배달 주문이 동시에 세 건. 요리야 바쁘다 바빠~!

“아저씨, 지금 담배 피울 때가 아니에요”

(요리 기다리며 막간을 이용한 깃연자 배달아저씨께 했던 말)

에피소드 3

주문 요리 포장 예쁘게 해놓고 픽업 온 배달아저씨께

“아저씨, 왜 왔어요? ”

“네...? ? ? ? ”

64년생 마늘 떡볶이 여사장님 파이팅! 따님 콘트라베이스로 이대 졸업하고 유학 다녀오고 스스로 정착할 때까지 쫓이요!

커피나무 하얀 꽃처럼 살고 싶다

쭈쭈! 짹! 쭈쭈! 짹!

이른 아침에 들려오는 소리. 비질소리! 마당 쓰는 비질 소리. 찌리 빗 자루일까?

봄보다는 가을에 더 자주 듣는 소리, 더 자주하게 되는 노동.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노동. 요즘은 시선이 닿는 곳, 그곳이 어디든 감탄스러워! 그곳이 자연이라면, 모두 아름답지! 난 인간의 예술이 자연의 예술을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하지, 흥내만 낼 뿐이라고 생각하지. 그 예술이 빗갈이건, 움직임이건, 소리가 되건, 심지어 과학조차 자연의 이치를 앞설 수 없지 않을까?

장을 보러 짬을 내서 사무실 근처 재래시장을 어슬렁어슬렁. 어~! 연천
적송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일삼아 농사지었다고 “알타리무 한 아름에 5
천원, 배보다 달다”는 무. 모양도 크기도 각각이야. 재밌네.

음 자연스럽게 컸네. 한 다발 주세요. 시래기 자르고 무 담고 하는 사이
먼저 두 다발 사신 어르신이 다발 속 무 하나가 깨지듯 갈라져 못났다고
바뀌달라고 하시길래 “제꺼로 바꿔드리세요” 했다. “전 못난이가 좋아
요!” 깨지듯 갈라진 무는 못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한살림을 가
도, 초록마을을 가도 예쁜 놈 보단 못난이가 더 많던 걸? 살충약 안 먹
고 자연스럽게 싸우고 자라고 해서 상처투성인 게 아닌가? 조금 작거
나 못났을 뿐 아닌가? 나도 자연처럼 살고 싶다! 나무처럼 꽃처럼 냇물
처럼 구름처럼, 새처럼, 물고기처럼, 노을처럼, 다람쥐처럼 … 감탄스러
운 빛깔과 아름다운 움직임을 지니고 싶어. 힘 빼고 긴장하지 않고 걱정
하지 않고 기대 없이, 희망 없이, 음 … 자연! 자연! 얼마나 자연스러워
야 자연다워질까?



마을 in 놀·일·터

정다운

요즘 새로운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면 나는 스스로를 ‘놀이활동가 또는 마을활동가’ 라고 소개한다. ‘마을활동가’라는 단어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참 생소했는데 이제는 스스럼없이 이 이름을 쓰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10여 년 가정에 머물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이제 ‘다시 일하고 싶다, 사회로 나가야지’ 하고 여러 길을 찾아보았지만 이곳저곳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움츠러들게 된다. 우연한 기회에 놀이큐레이터 교육을 받았다. 책 읽고, 공부하는 생활에 익숙한 나에게 몸을 움직여 활동을 하는 놀이는 처음에는 참 낯설고, 생소했다. 그런데 놀이를 배워갈수록 몸과 마음이 생생히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모르던 나를 깨운 것 같은 신기한 체험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이Q 동아리를 만들었다.

우리 동아리는 마을의 도서관, 학교, 축제 등에서 아이들을 만나왔다. 우리의 첫 놀이 프로그램은 ‘신나는 놀이터’였는데 동네 아이들과 전래놀이, 책읽기, 놀이감 만들기 등을 했다. 후에 이 활동은 정릉도서관으로 옮겨와 ‘콩콩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 봄, 가을에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놀이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단연 ‘더하기 축제’다. 정릉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재활용품을 이용해 축제를 만들었는데, 놀이Q는 그 중에서도 전래놀이 마당을 맡았다. 청소년, 대학생, 청년, 놀이활동가 등 다양한 세대가 결합한 활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깊은 애착이 가지만, 긴장되는 활동 중 하나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말 ‘놀이체육’이다. 관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라 수업을 준비하면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일반 놀이를 그대로 수업으로 가져올 수 없어서 이 친구들의 특성에 맞게 놀이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변수가 많은 친구들과의 만남은 매번 새로운 도전이다.

새롭게 시작한 일이 놀이였다면 책과 연계된 활동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온 일이다. 놀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쯤 마을 작은도서관에서 책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봉사로 찾았던 작은도서관에서 돌봄 일을 하며, 매주 ‘정든책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놀이’와 ‘책’이라는 두 분야의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이 둘을 결합해 보고 싶어졌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올 여름 강북과 성북에서 ‘한 책’ 후보도서였던 <행복한 가방>과 <바퀴>를 주제로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로 책을 만난다’는 새로운 시도였다. 아이들에게 책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전지에 원화를 여러 장 그려서 강의실을 꾸미고 책 속의 그림을 이용한 가렌더를 만들어 연출했다. 글 없는 책에 말풍선을 달아보고, 붓을 대신해서 물풍선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담아 책과 공간을 재구성해보는 활동이었다. 참여한 아이들이 무척이나 즐거워하였다. “선생님, 이거 또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하면 안돼요?”라고 묻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 당신의 ‘일과 삶’은 어떤 것이었냐고, 그 균형을 찾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이·삼십대에는 직장 생활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사십대가 되었고, 제 앞에는 가사 일만 남았습니다. 간절하게 다시 사회로 나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었지만 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0’으로 수렴해 버린 바깥일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

간이 지난 지금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비율이 4:6 정도로 공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을활동가, 놀이활동가’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요. 저는 매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게 온 다섯 번째 봉인 실

오영주

“속에 담고 살지 마 ... 만약에 지금 싫은데도 계속 하고 있는 일 있으면, 당장 멈춰. 너 아주 귀한 애야. 알았지?” -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중에서

김려령 작가의 전작 『완득이』를 영화화한 이한 감독의 <우아한 거짓말>을 보고 끊임없이 주인공 천지를 괴롭히는 화연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알고 싶어 책을 펴들었다. 작가는 엄마의 말을 통해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생일잔치에 일부러 시간을 잘못 알려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천지를 고립시키는 화연, 그런 와중에 천지에게 다가가 왕따가 되지 않게 해준 미란, 그리고 천지 주변에 있었던 많은 방관자 혹은 동조자들. 빨간 실뭉치 속 실패에 적힌 천지의 메시지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화연과 미란에게 전해지고 천지의 언니 만지는 다섯 개의 실뭉치를 쫓는다.

천지는 교실에서 수행평가를 계기로 화연에게 ‘예비 살인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화연은 그것마저 대수롭지 않은 듯 천진한 얼굴로 받아 넘긴다. 미란 역시 천지에게 “화연이 그런다고 바뀔 것 같냐”고, “아이들도 구경꾼이 되어 즐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지는 묵묵히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이어간다. 천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 도서관에서 만난 ‘오 대 오’ 가르마 추상박 아저씨는 천지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추상박 아저씨 또한 천지가 우울하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중학생 때 천지와 같은 선택을 하려했던 김려령 작가는 그 당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다”라는 우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잘 지 내니?”라는 이모의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고 한다.

집단의 다수와 대립된 위치에 섰을 때 “다 널 위해서니 이쪽으로 오라”



는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자신의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그런 어른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 책이 단지 ‘청소년 문학’ 으로서만 소개되는 것에 아쉬움이 생긴다.

아이들이 ‘공짜 지갑’이라 칭하는 화연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돌아다니는 놀이동산의 키 큰 피에로일 때 천지는 피에로의 긴 바지 속 높은 버팀목일 수 있었다. 엉킨 마음을 푸는 독백을 하는 섬세한 천지를 알아주지 못한 ‘둔한’ 이들에게 실뭉치 속에 메시지를 넣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관계를 과감히 끊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직접 상대에게 말하는 천지였다면 … 별것 아닌 것을 손에 쥐고 우쭐대는 화연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만지는 화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겠다 말한다.

자존감이 낮아서,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관했다면 이제 주변을 다시금 섬세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 피에로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키 큰 피에로가 아니라, 손 내미는 친구, 성숙한 사람이 되어 아슬아슬한 피에로와 그 버팀목을 보아야겠다. 나 또한 천지가, 화연이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실 뭉치는 우리에게 열려 있다.

칭따오를 찾아서

채종현

“칭따오 맥주 먹고 싶다.” 단순히 그 이유였다.

텔레비전에서 ‘양꼬치엔 칭따오 가고’ 하는 맥주 광고를 보다가 칭따오 맥주가 먹고 싶어졌고, 아내와 나의 청도 행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됐다. 비행기와 호텔을 알아보는 과정도 인터넷으로 하루 만에 오케이. 그래, 이렇게도 떠나보는 거지 뭐. 2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이었다. 오후에 타서 오후에 떨어지는 시차도 없는 짧은 거리에 만족하며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중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뭐라고 뭐라고’ 한다. 썩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억양을 섞어 말하니 정말 ‘뭐라고 뭐라고’ 라고 들리는데, 그 와중에 ‘택시’ 라는 단어를 듣고는 아, 택시 타는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가 보다 하고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다. 승강장에 가니 택시 기사가 아주머니를 보고 뛰어 와서 캐리어 받아 차에 실었는데, 음... 이런 택시는 참,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낡은 택시였다. 운전석과 승객석도 철근 같은 걸로 분리가 되어 있고 덜컹거림은 또 얼마나 심한지 인력거를 탄 건지 택시를 탄 건지 아무튼 그런 택시를 타고 호텔 인보이스 프린트한 걸 내밀고는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기사도 초행길이었는지 몇 번이나 우리에게 호텔에 대해 물었으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더니 기사도 포기했는지 해매고 또 해매면서 두 시간 만에 - 해맸다는 건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택시를 타고 알게 되었다. - 호텔에 데려다 주기는 했다. 얼른 요금을 내고 호텔 앞에 서서 한숨을 내 쉬었다. 이제서야 말이지만 그 때 우리는 어디로 잡혀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했더랬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도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맥주’를 어디에서 공수할까였다. 다행히 호텔에는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청도에 오기 전 폭풍 검색으로 알게 된 맛집을 물어보고 안주와 맥주를 사러 갔다. 택시 기사가 ‘찌모루’ 시장이라고 내려줬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

장이 없었다. 택시 기사가 잘못 내려 줬나보다고 원망하면서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난 감함에 무작정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찮게 눈에 익은 ‘잔교’라는 지명을 보고 버스에 탔다. 그렇게 잔교에서부터 시작해 그 맛집을 찾을 수 있었다.

“야, 저거 봐. 맥주를 봉지에 싸 간다.”

맛집을 나와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으면서 손에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니 “당연하지. 맥주를 그럼 봉지에 싸가지 어디에 싸 가?” 아내는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이냐는 심드렁한 투다.

“아니, 봉지에 싸 간다고”

그들은 맥주병이나 캔을 봉지에 넣어가는 게 아니라 맥주 자체를 비닐 봉지에 바로 넣어 간다. “아..., 봉지에 싸 간다고.” 봉지에 싸간다는 똑같은 말은 몇 번 반복된 후 처음과는 아주 다른 의미가 되었다. 아무튼 우리는 봉지 포장이가 아니라 캔으로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캔을 부딪쳐 건배를 했다. 캔 밖으로 거품이 흘렀다. 피곤한 일정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거품이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5.4 광장에 내렸다. 탁 트인 풍경이 시원했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맥주 박물관”이었으므로 광장 산책은 잠시 미루고 종합안내소에 가서 길을 물었다. 안내원은 멀지 않으니 헤매지 말고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버스를 타면 뭔가 더 여행을 잘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버스비가 기본이 1원이고 좀 멀리 가거나 시외버스를 타도 2원이라는 매력적인 값이어서 대충이나마 알아들은 대로 버스를 타기로 했다.

“여기서는 이원이 일원이야.” 라는 내 말에

“응? 2원 내라고 하면 1원만 내면 된다고?” 아내가 물었다.



“아니, 이,얼,싼,쓰... 들어봤지? 이(-)원이 일(1)원이라는 뜻이라고. 한국사람들이 헛갈려서 1원을 2원으로 많이 낸대.” 라고 말하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외국인이 타니 당연히 맥주 박물관에 간다고 생각했는지 기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맥주 박물관에 가려면 어디 어디에서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박물관을 지나면서는 박물관을 가리키며 ‘여기’ 라고 알려주었다. 맥주 박물관은 생각처럼 근사했다. 맥주 만드는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칭따오의 판매망을 보았다. 중국 맥주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놀랐다. 무엇보다 뽑아서 바로 맛보는 샘플 맥주는 신선했고, 별 것 아닌 땅콩마저도 너무나 고소하게 느껴졌다. 박물관을 나가기 전에 매장이 있어서 맥주를 더 즐길 수 있었지만 우린 그냥 밖에서 기분을 느끼기로 하고 박물관을 나왔다. 그런데 그 많은 술집들이 지난밤의 취기를 이기지 못한 듯이 하나 같이 문을 열지 않아서 잠시 거리를 배회하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5.4 광장으로 돌아왔다.

5.4 광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색 상징물(나중에 알아보니 상징물의 이름은 ‘5월의 바람’ 이다.)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역시 중국이라 크기가 남다른 호수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내는 5.4 운동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 관리는 5.4 광장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우리나라 탑골공원도 담장을 없애면 접근이 좀 더 쉬울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한 바퀴 돌기에 너무 넓은 광장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다만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플 뿐이었다.

점심 메뉴로 선택된 오리요리를 맛볼 장소는 폭풍 검색으로 찾아낸 청도의 맛집 ‘베이징 덕’이었다. 수저와 포크 그리고 물티슈가 놓여지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맛 볼 수 있었던 오리요리는 실망스러웠다. 작디작은 크기에 비쩍 마른 오리는 뜯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양이 많은 볶음밥

은 호텔 조식에서 제공되었던 것 보다 맛이 덜했다. 결국 우리를 배부르게 한 건 근처에서 찾은 맥도날드 햄버거였다.

다음 목적지는 청도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신호산 공원. 오늘은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으므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투어를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말하는 대화 속에서 단어 하나를 듣고 “거기 가려고?” 라고 하며 자신들이 아는 것을 알려 주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뭔가 경직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다를 바 없었고, 버스 기사도 그렇고 오히려 여성의 직업 활동은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다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뿐이었으므로 유추해 해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겪고 나서야 ‘아...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신호산도 그랬다. 알아들은 대로 내리니 한 정거장을 더 가게 되었는데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라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안개가 많이 끼어 시내가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버스를 타고 다시 잔교로 나왔다. 낮이 되니 어제 헤맨 것이 어이가 없었다. 어제 우리가 찾던 곳들은 다 거기서 거기였다. 택시에서 내려 한 바퀴 크게 돈 셈인데, - 어제 우리가 잘못 내려줬다고 원망했던 택시 기사도 제대로 된 곳에 내려 준 거였다. - 하긴 우리나라도 정류장 이름은 같아도 버스마다 정류장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청도도 같은 ‘잔교’ 라도 도로 하나를 두고 길 건너에서 내릴 수도 있고 조금 지나쳐 내릴 수도 있는 거였다. 이쯤 되고 보니 다음에 누군가와 같이 온다면 버스 투어 안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다. 현지인이라도 된 듯이 너무도 거리낌 없이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서 물건이 다양하고 값이 싸다고 알려진 ‘까르푸’ 에서 8가지 종류의 청도 맥주를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하루를 돌아보니



의외로 현지 중국인들은 친절했고, 생각보다 작은 도시는 버스로 원하는 곳을 다니기 편한 곳으로 청도는 여행하기에 괜찮은 도시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루 일과를 맥주와 함께 마무리 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준비만으로 일정이 끝나는 2박3일의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에 가까운 데 어디라도 갈까 했지만, 늦잠도 좀 자고 호텔 여가저기도 좀 둘러보면서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다. 첫 날 그 후진 택시를 타면서 160위안이라는 걸 150위안으로 흥정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흥정을 하는 내가 어떠냐며 아내는 어깨를 으쓱 했었는데 첫 날의 택시에 비하면 최고급 세단 택시가 77위안에, 거기다 40분 만에 우리를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첫 날 생각하고 일찍 나온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그리 크지 않은 청도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맥주 한 박스를 사고서야 우리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캠핑의 시즌이다

허광석

청명한 하늘, 상쾌한 날씨, 울긋불긋 물든 단풍들이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족의 캠핑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동안 가까운 공원에 나들이만 다니다가 캠핑의자를 사고 친구 따라 몇 번 캠핑을 다녔다. 그러다가 큰마음을 먹고 캠핑용품을 장만하여 들뜬 맘으로 캠핑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모든 초보가 그러하듯 모든 것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얼마나 무지한 채로 캠핑을 시작했는고 하니, 첫 캠핑 날짜를 한여름, 그것도 8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으로 잡았던 것이다. 작년 여름,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캠핑이 시작되었다.

캠핑 장소는 해수욕장.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해수욕장의 캠핑장이었다. 드넓은 캠핑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빨리 가족들이 쉴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캠핑장 내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조그마한 나무 그늘이라도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텐트를 치고 있자면, 그동안 해가 넘어가서 그늘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다시 텐트를 옮기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보니 지치고 배가 고파왔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내가 텐트를 치는 동안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 될 텐데, 왜 먹을 것이 없었냐고?

당시 우리의 캠핑 구성원은 나, 아내, 5살 큰딸과 10개월 작은 딸이었다. 10개월짜리 둘째는 걸음마는커녕 혼자서 서지도 못하는데다가 수시로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을 재워야 할 때였다. 큰딸은 어찌어찌 혼자 놀거나 할 수 있는데, 둘째는 나랑 아내 중 한 명이 계속 볼

어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는가?
모든 육아 용품과 편안한 잠자리가 구비된 집을 떠나서 햇볕과 모기와
모래가 가득한 바닷가의 좁고 뜨겁고 불편한 텐트라니.

캠핑장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바로 자동차 안이었다. 더우면 바닷물이
아닌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었다. 흐흐흐, 이 정도면 가히 육아에 잠
시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지 육아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열망만이 있었을 뿐
이었다. 처음이라 그랬다고 하기엔 너무나 큰 내상을 입은 캠핑 경험이었
었다. 정말 너무나 무모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 둘 다 그 상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우리 부부는 지금도 한 번씩 그 때를 떠올리며 우리가 진짜 왜 그랬는
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지인들 따라서 몇 번 가본 캠핑장의 호
젓하고 여유로움만 생각하며 갔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피난민 체험과 같
은 3박4일의 캠핑을 하며 아내랑 한 대화가 “캠핑하다 이혼하겠다” 였
다. 그렇게 우리가족의 첫 캠핑은 끝이 났고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캠핑을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전 부모님이 애들을 보러 올라 오셨다. 주말이라 주변에
단풍놀이나 갈까 하다가 아내가 집이랑 가까운 키텍스 캠핑장에 자리가
있다고 캠핑을 가자고 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즐기고는 싶는데 애 둘과
부모님을 자동차로 멀리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나름 절충안을 찾
은 것이다. 캠핑이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애들이 1년 동안 성장했고(둘
째는 두돌이 지나 걷고 의사표현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다) 어
른이 4명이나 되니, 돌보기에 훨씬 나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캠핑
장에 도착해서도 준비물을 가지러 집에 여러 번 다녀와야 했지만 그전
처럼 힘들지 않았다.



날씨가 상쾌해서 딱 좋았다. 날씨가 정말 중요함을 느꼈다. 텐트를 설치하고 준비해간 음식들을 해먹고 애들은 어느새 주변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심심하면 놀이터에 가서 노는 등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아졌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캠핑을 다시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동안 캠핑 장비를 처분하려고 이리저리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맥주 한 잔 하니 정말 좋았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추워지기 시작해서 애들과 아내는 텐트에 들어가고 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 모닥불을 중간에 두고 둘러앉았다.

불멍(모닥불을 보면 멍때린다는 뜻)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 자식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참 오랜만이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었구나.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한 적은 많아도 이렇게 야외에서 한적하게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며, 지금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은근히 상기된 어머니와 신나하시는 아버지, 기분 좋아하시는 두 분을 바라보며 내 자식들을 위해 시작한 캠핑인데, 부모님이랑 오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다녔던 캠핑들도 생각이 났다.

사실 내가 캠핑을 하고 싶어한 이유는 어릴 때 아버님이 나랑 동생을 데리고 요즘으로 치면 노지캠핑을 다니셨기 때문이다. 강가에 텐트치고 물고기, 다슬기를 잡고, 끈으로 묶은 자전거를 끌고 산과 바다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경험과 배움은 내 자부심이 되었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오히려 한창 캠핑을 다니던 어릴 때는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도 민박이나 콘도에서 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여행을 가면 항상 텐트에서 잤던 터라 캠핑이 너무 싫었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캠핑이 유행하고 했

을 때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30년 만에 부모님과 역할을 바꿔서 캠핑을 온 것이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들을 하다가 잘 시간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랑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자고 하니, 두 분이서 캠핑장 텐트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다. 비록 전기장판을 연결해 놓긴 했지만 걱정이 되어 다시 한 번 집에서 주무실 것을 권했더니 어머니가, “우리 나이에 언제 다시 캠핑장에서 자 보겠노? 이번 생에서는 마지막 아니겠나?”라고 하시는데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며 기분이 묘했다. 그렇게 캠핑이라 하기에 애매한 나들이를 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한 그 캠핑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다. 육아로 인해 관심이 자식들에게만 가고 있었는데 소중한 경험이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잘 준비해서 부모님과 제대로 캠핑을 가봐야겠다. 그때는 화롯대 숯불에 고기를 구워드려야지. 글썽씨가 없어서 그 때의 감정과 느낌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참 좋았다. 소중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캠핑을 가겠지만 꼭 부모님과도 함께 가보길 권한다.



호박이닝쿨책 기행기

심재빈

2019년 7월.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 후 몇 주를 집에서 꼼작하지 않았다. 보고 싶던 영화와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배달 음식과 편의점 군것질로 끼니를 때웠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다. 이불 속은 포근했다. 인스턴트 음식은 감미로웠다. 회사 생활로 탈진한 몸은 그동안의 숨 가쁜 패턴을 잊고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수분을 솜처럼 빨아들였다. 이날도 특별할 게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 전까진. 언제나 나를 '꽤 괜찮은 남자'로 비춰주곤 했던 거울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낯선 이가 거울 속에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을 원했고 사회 관례에 따라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다. 회사원이 되어 믹스커피 타는 법, 복합기 사용법, 소맥 마는 법, 야근 도망치는 법, 뒷담화 피하는 법, 뒷담화 하는 법, 티 안 나게 아부하는 법 등을 배웠다. 지금 거울 앞엔 M자 탈모가 진행 중인 배 나온 한 사내가 서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내도, ‘꽤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마의 빈 곳을 앞머리로 가리고 나온 배는 숨을 들이켜 벨트로 묶었다. 내가 배우고 싶던 건 저런 것들이 아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내가, 나인 채로 나서는 정말 오랜만의 외출. 하늘이 파랗다.

노래방에서 내 별명은 양희은이다. 예전부터 노래를 잘하고 싶었지만 별다른 재능이 없는 난, 조금만 음이 높아져도 쉿소리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쉿소리를 과하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면 친구들은 배꼽을 잡으며 바닥을 데굴데굴 구른다. 검색을 해보니 가까운 곳에 보컬 레슨 학원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지도대로 길을 따라 걸으니 곧 허름한 상가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자 카페 같은 공간이 나왔다. 학원이라기보다 여기저기 손길이 닿아 있는 아지트다. 책장에 빠죽 튀어나온 악보도 그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 보인다. 레슨 등록을 하려고 원장과 마주 앉았다. 이 대화가 6시간 동안이나 이어질지 누가 알았을까.



음악에 관련된 얘기는 5분 남짓, 발성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다. 이날 학원 원장과 보컬 레슨 희망생은 그저 죽이 잘 맞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제랄 것 없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끝났나?” 싶을 때쯤이면 또 새로운 주제가 튀어나왔다. 대화가 길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봐야 할 드라마도 있었다(죽은 줄 알았던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 있었고 기억 상실로 봉어빵 장수가 되었는데, 딸이 그 옆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이어진다). 끝날 기미가 없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입으로 읊조렸다. 원장이 안 된다.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다. 몸이 배배 꼬이고, “언제 이렇게 손톱이 자랐지?” 손을 폼 잡았다 하며 탄생각을 할 때쯤 원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같이 시나 동화를 녹음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그 말이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리하여 대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학원을 빠져나왔을 땐 하늘은 붉은 셀로판지를 씌운 듯 노을이 저 있었다. 숨을 들이키자 기분을 들뜨게 하는 저녁 공기가 코를 통해 가슴에 차올랐다. 딱히 볼 일은 없었지만 나는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다 집에 들어갔다.

작심삼일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며칠 전 대충 벗어던져 놓은 저 흐물거리는 티셔츠보다도 더 무기력해 있다. 쉽든 잘 익든 열대의 과일보다도 더 달콤하다. 등이 방바닥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안정이 느껴진다. 만약 “성북구 가로수에서 포도와 바나나가 열린다면 나는 주저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디오니소스가 되리라” 라고 게으름이 당위성을 찾아갈 때쯤 카톡으로 포스터 한 장이 전송되어 왔다.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자 모집 [라디오 DJ부터 PD까지! 팟캐스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시간]’. 학원 원장의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녹음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

서 공유해요! 같이 가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 좋아요.” 나는 흔쾌히 답장을 보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녹음을 한다고 한다. 이곳은 정릉에 있다고 한다. 정릉, 이곳은 어디인가? 성북구에 30년 가까이 살았다. 종종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꾸벅 졸다 내릴 곳을 지나치면 태릉에서 눈을 뜨곤 했다. 정릉은 모르겠다. 이날 한껏 게으름을 피우다 택시를 탔다. 오랜만에 타는 택시다. 회사를 다닐 때는 야근이 일상이었고, 버스나 지하철이 끊길 때면 자주 택시를 이용했다. 낡은 택시에서 나는 특유의 코를 찌르는 냄새와 기사 아저씨의 시끄러운 말소리가 내게 최면을 걸어 잠에 들랑말랑할 때 “다 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내리란다. 정릉은 가까웠던 것이다! 도착까지 10분 남짓, 나는 만 원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금은 오천육백 원이었다. 어리둥절한 채로 택시 문을 닫고 내리자 저기 횡단보도 너머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보인다.

모임 장소로 올라와 보니 딱 약속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웅했다. “내가 장소를 착각을 했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건물 내에 있는 카페에서 토스트 하나를 샀다. “속이 든든하면 긴장도 덜 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실수였다. 전자레인지에서 갓 나온 밀가루 덩어리의 식감은 씹을수록 고무를 연상케 했다. 겉의 버터와 속의 치즈는 적절히 잘 녹아 어쩐지 휘발유 맛을 냈다. 나는 이 놀라운 맛에 “먹어도 괜찮겠지?” 의문을 품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꿀꺽 삼켰고, 당연히 체했다. 사람들은 내 체기가 무르익을 때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10명의 팟캐스트 지원자들은 카페 테이블을 붙여 빙 둘러앉아 있다. 대부분 40~50대 아줌마, 아저씨 같았다. 가벼운 인사와 소개를 나누고 나니 서로 할 말이 푹 떨어졌다. 곧 침묵이 이어지고 어색함이 밀물처럼 밀려오더니 이내 만조가 됐다. 사람들은 질식을 피하기 위해 하나 둘 고



개를 숙여 전화 기능이 있는 산소호흡기를 핸드백에서,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 인생 선배님들도 첫 만남에서 오는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휘발유 맛 고무 토스트로 인한 체기와 어색함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에 호흡이 조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주인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프로그램을 진행할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좀 늦는단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인장은 일어난 김에 아까 한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했다. 글을 쓴다고 했고 호박이닝쿨책이라는 책방도 운영한다 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음악 학원에서 온 세 명과 배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박이닝쿨책 사람들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문학인의 전형적인 생김새를 갖추고 있었는데, 다양한 특징을 들 수 있겠지만 만약 하는 일이 문학 쪽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손에 펜과 노트를 꼭 쥐여 주고 지금 당장 글을 써보시라 권유하고 싶게 생긴 상이다. “당신은 노인과 산, 카라마조프의 자매들, 호밀밭의 밀수꾼을 쓸 상이요!” 하고. 나는 호박이닝쿨책에 대해서 “KBS 주말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라고 잠시 생각할 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감독은 내가 질식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도착했다.

녹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송에서나 보던 라디오 녹음실은 진짜 라디오 DJ가 된 듯한 까부는 기분을 내게 선사했다. 호박이닝쿨책 아줌마 아저씨들도 좋았다. 새로운 경험은 가슴 속 모닥불이 되어 자리했다. 나뭇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잔잔한 불로 일렁였다. 여름이었고, 여름에 어울리는 경험이라 생각했다. 밤바람이 상쾌해 조금 걸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 만일까. 어렸을 때는 자주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마 지금 난 신이 난 것 같다. 신이 난 것이다!

“다음 주까지 2인 1조 팀으로 라디오 코너를 짜주세요.” 교육을 마치고 감독이 말했다. 나랑 같이 온 음악 학원 원장과 실장은 서로 팀을 짰다.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보며 난 속으로 외쳤다. “나는?!” 홀로 구석에서 주눅대고 있었는데, 연극배우를 한다는 아주머니가 성큼 다가오더니 라디오 코너를 같이 하자고 했다. 이유는 내 목소리가 좋아서라고 말했다. 인상도 좋다고 내게 말해줬다. 눈에 거짓이 없었다. 난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좋다. 다음 녹음일이 다가오자, 이제 슬슬 대본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내 파트너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서 코너를 짜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카톡을 보내자, “제가 지금 제주도도 놀러 왔는데, 도착 일정이 녹음 하루 전날 저녁이에요…. 죄송해요. 써주시면 그대로 해볼게요.” 라는 답변이 왔다. 여기서 잠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 자기는 놀면서 나보고 다 해오라고? 어이가 없네? 안 해!” 하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기획팀 일당백 십 팀장이다. 내 이마의 머리칼과 맞바꾸어 얻어낸 실무 능력이 빛을 발휘할 때다. “후후후…” 모두를 놀래킬 생각을 하니, 웬지 모르게 비열한 웃음 새며 입꼬리가 들쭉거렸다.

배우는 배우였다. 대본을 받고 현장에서 리허설 한 번 했을 뿐인데, 며칠을 연습한 나보다 나았다. 발음은 정확했으며, 목소리에 생동감이 있었다. 프로다. 그에 비해 나는 녹음 큐사인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뜨고, 발음이 섰다. 한때 TV 예능에서 소품으로 쓰이던 ‘뽀오오오!’ 소릴 내는 노란색 고무 닭이 라디오 녹음을 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일 것이다. 무리해서 힘을 짜내다 보니 의욕이 앞서 혀가 꼬이기도 했다. 대본을 든 손이 부들거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에게 도취되어 “공중과 라디오에서 섭외 들어오면 어찌지?” 하고 온갖 망상을 펼친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머리가 하얗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녹음은 끝나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못마땅해 어린애처럼 뽀로통해 있는데, 호박이닝쿨 아줌마, 아저씨들은 이 30대 철부지에게 돌아가며 잘했는데 왜 그러냐며 달래준다. 나도 모르게 머쓱함에 머릴 긁적거렸다. 진정이 된 나는 차분히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사람들 모두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눈가에 다정한 눈빛을 담고 있다. 이들을 보고 있자니, “호박이닝쿨책은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나도 여기 끼고 싶다.

이후 각 팀별로 준비한 코너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총 5주 동안의 교육 과정이 모두 끝났다. 이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끝났으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뒤편이를 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덩그라니 가서 뭐하겠는가(보컬 레슨 학원 실장과 원장은 다른 행사 일정으로 도중에 하차했다). 서먹한 채 홀로 앉아 음식만 주구장천 주워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니, 혼밥 보다 더 쓸쓸하고 궁상맛을 뽀이다. “그래, 집에서 게임이나 하자.”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둘러매는데 누가 불러 세운다. “심DJ(여기서 불리는 별명이다.) 뒤편이 가야죠?” 주인장이다. 등치는 큰데, 문학인 관상인 그 사람. “치킨이랑 맥주 먹을 건데 같이 안가요?” 요런 털털한 말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말 몇 마디는 걸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저 없이 간다고 했다.

밤이 깊어가자, 뒤편이 또한 깊어간다. 무슨 말이나면 많이 마셨다는 얘기. 지금 내 앞엔 마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초지일관 똥한 표정이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계속 신경이 쓰인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흠—” 같은 불편한 기색을 내는 중년 남성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대표, 사장, 부장,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며, 담배와 술을 좋아하고, 앞선 예의 똥한 표정을 짓곤 한다. 이

들은 못마땅한 상황이라 판단이 서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군!”, “내가 좀 가르쳐야겠군!” 하고 굳게 닫았던 입을 열어 상황을 바로잡는다. 물론 자신 나름의 기준대로. 소주 담긴 잔을 홀하고 털어 넣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심DJ 처음 봤을 때 별로였어!” 자리에 흐르는 침묵. “그런데 지그문 조하 흐흐흐.” 다들 웃음이 터졌다. 다들 먹고, 마시고, 떠들었다. 나도 그들 속에 있었다.

이름을 왜 호박이닝쿨책이라 지었는지 두어 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께 하는 사람이 마흔 명이 넘는다는데 아직 반도 못 봤다. 어떤 계획이 있다가 보다는 그때그때 재밌는 것들을 한다. 서로를 부를 땐 실명이든 닉네임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 나이를 묻지 않는다. 누군가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어휴 너는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반가워!” 이런 느낌이랄까. 뜨거운 열정은 덤이다. 알 수 없는 공간, 나는 이곳에서 나를 찾았다.













소나무집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

이연수

“예전에 저 아래 아리랑시장에서 여길 올라오려면 개천을 세 개나 건너야 했어 ...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예전에 여기 이름이 집 뒷말이었어. 집들 뒤쪽에 있는 데라고 ...

이 집이 내가 등집지어다가 혼자 지은 집이라 많이 부실해 ... 아내가 나 만나서 참 고생이 많았지, 지금도 불편한 집에서 사느라고 고생하는 중이고.”

정수초등학교 담벼락 아래쪽으로 커다란 소나무가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새인냥 집을 포옥 감싸 안고 있는 작은 집이 있다. 작은 집의 옥상은 소나무의 커다란 그늘 아래 아주 느긋하고 편안해 보인다. 그 집에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다. 소나무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정릉에서 사셨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할아버지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잠깐의 대화를 통해 할아버지 인생과 정릉의 세월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소나무는 우리 아버지가 심으셨어, 세 그루였는데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지. 내가 막걸리 뿌려 줘가며 정성을 많이 들였어.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봐. 우리 집 옥상에서 삼겹살 한번 구워먹자는 사람도 있고, 집을 다시 지어줄 테니 소나무를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그런 건 내가 싫어서 안 해”



“저기 저 아파트 있는 자리가 원래는 산이었지.
은사시나무가 많은 산이라 동네사람들이 가서 놀곤
했었는데 산을 깎아내고 아파트를 지은 거지,
그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
지금은 되려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들더러 지저분하다고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저 열심히 몸을
쓰며 살았지! 그 덕에 여기 저기 아픈 데가 많아. 보면 공부
많이 한 노인들은 훨씬 젊고 아픈데도 없는 것 같아.”

“저 앞에 있는 집이 우리 형님 댁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
형님은 돌아가시고 조카도 몸이 안좋아서 ... 이 땅도 형님
땅인데, 우리가 이것저것 심어서 먹고 있지.”







오

리

조리

리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자신으로부터의 탈출

여성독립가 정정화를 기억하며

김가희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지난 호에서 회고록을 남긴 여성독립운동가 이은숙에 대해 다루면서 다음 호에는 정정화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은숙처럼 정정화도 가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이다. 해방 이후에 성북구에 거주하였고 『長江日記』* 라는 회고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은숙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은숙의 회고록은 출판 시기에 따라 책의 제목과 부제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번 글에서도 역시 『長江日記』라는 제목과 부제를 살펴봄으로써 글을 시작하려 한다.

세계에서 세 번 째로 긴 강인 장강은 양쯔강의 다른 이름으로 상해·난징·우한·충칭과 같은 거대도시들이 이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상해뿐 아니라 난징, 충칭 역시 임시정부가 거쳐 간 곳이다. 장강의 긴 역사에 비하면 27년의 임시정부 시절은 찰나라 할 수 있겠지만 조국을 잃고 떠

*정정화. 『長江日記』. 학민사, 2018.

돈 망명자들에게 그 세월은 장강의 푸른 물줄기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도 무서운 설움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長江日記』의 부제는 「양자강 푸른 물결 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이다. 나라를 잃고 임시정부라는 배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지는 일을 묵묵히 해 낸 한 여성 독립운동가. 그녀의 이름이 바로 정정화이다.

『長江日記』는 정정화가 상해에 있는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환을 찾아 떠나는 1920년 1월 초순 서울역의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상해 행에 대해 “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18)이라고 표현하며 고난의 길이겠지만 자신이 택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정화는 “내가 이름 석 자를 내 걸고 항일 독립 운동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여든 여덟의 나이되도록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 내가 임시 망명정부에 가담해서 항일 투사들과 생사존몰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나의 사사로운 일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내게 할 일을 주었고, 내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8)라고 말하며 자신의 독립운동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일관한다.

정정화가 비록 시아버지와 남편을 뒷바라지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독립운동가인 시아버지와 남편을 찾아 떠나는 젊은 여성의 선택을 사사로운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딸, 며느리, 아내로서 주어진 역할에만 충신했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강한 의지에 찬 한 여성은 그 날 서울역 역사를 빠져나가는 열차처럼 과거로부터 탈출하여 인생 변곡점을 넘고 있었다.

당시에도 이른 나이인 열한 살에 결혼을 하게 된 정정화는 양대판서 집

* 위 책, 18쪽. 앞으로 책의 직접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한다.

이라고 불리는 명문가 출신으로 종일품 지위까지 오른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을 남편으로 맞이한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정정화는 시집살이를 어려워했음에도 시아버지의 자상한 인품과 인자함에 대한 존경심이 컸다. 서출 출신이었던 시아버지 김가진은 서른이 넘어서도 과거에 응시를 못하다가 “적서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상소”(25) 덕분에 34세 때 규장각의 말직으로 시작해 종일품의 직위까지 오른 인물로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다. 경술년인 1910년에 합방을 하면서 일본은 귀족에게 작위를 주었고 왕족은 물론 종일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조선귀족력에 따라 작위를 부여했다. 이 때 김가진은 공개적으로 작위를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작위에 따라 주어지는 연금은 끝내 받기를 거부했다.

정정화는 신문기사를 보고 김가진과 김의한이 상해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화려한 관직과 일본의 작위까지 받은 고관의 해외 망명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에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홍보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작위와 관련한 정정화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침략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일본도 이 나라에서 전래되어 온 지배체제를 활용하여 지배층에게는 어느 정도의 특권을 존속시키며 그들을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 그들과 더불어 백성에 대한 수탈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많은 지주들은 왜놈의 수족이 되어 그들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살찌워 나갔다. (29)

침략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 결탁한 지배층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정화는 동학 농민혁명을 “민권과 민생을 위한 투쟁이었으며, 척양척왜의 자주 독립투쟁”(27)으로 규정한다. 정정화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가족, 임정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항일 투쟁의 역사는 물론 세계정세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제시한다.

상해에 도착한 정정화는 임정에서 활기찬 움직임을 체감하지만 밥상에 올릴 식량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에 부닥치게 된다. 정정화는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국내에 들어가 돈을 구해오겠다는 의사를 임정에 먼저 전달할 정도로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친정에 가서 돈을 구해 오려던 그녀의 개인적인 계획은 연통제를 이용해 독립자금을 조성하는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임무가 되었으며 그 후 총 여섯 번이나 국내를 왕래하게 된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녀 스스로 찾아서 했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여성정책은 급진적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5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등의 조항이 있다. 여성의 선거권 획득이 영국과 미국이 각각 1928년, 1920년이었던 사실을 보면 임시정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서구에 비해서도 매우 앞섰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헌법문서에 여성의 참정권을 삽입한 것이 1931년 무렵이었고 일본은 1890년에 제정된 ‘집회 및 정사법’을 통해 여성의 정당 및 결사 가입과 정치연설회 참가를 아예 금지했으며 1925년 보통선거제가 실시될 때도 여성은 제외되었었다고 한다. (115)***

상해에는 대한부인회 등의 여성모임들이 있었는데 주로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정화는 거기에 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정화는 아버지의 반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정정화가 신식교육을 받았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당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의 삶 전체가 안타깝기만 하다. 임시정

***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108-41.

부에서 헌법적 가치로 남녀평등을 인정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띠지만 현실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임정에 소속되어 있는 부인들은 각자의 생활이 풍요롭거나 풍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늘 손에서 일이 떠나지 않았다. 임정이나 광복군 또는 임정 산하단체의 모든 행사에는 꼭 부인네들의 손길이 닿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일도 부인네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정화는 살림과 시아버지 뒷바라지 그리고 임정의 안살림 등에 전념하면서도 “보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고”(65) 생각하며 성제 이시영, 세관 유인옥 두 분으로부터 한학과 역사, 영어까지 배웠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던 정정화는 “틈틈이 겨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책을 놓지 않았다”(174)고 한다. 그녀가 회고록을 펴낸 것이 1987년이고 보면 1900년 생인 그녀 나이 여든여덟 되는 해였다.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은 어머니가 그 연세와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로도 돈보기에 확대경까지 들고 책을 읽으셨다고 회상한다.

해방 후 정정화는 공부를 가르쳐 준 부통령 이시영으로부터 감찰위원회 위원을 맡으라는 제안을 받는다. 감찰위원회는 손문 정권의 감찰원을 본떠 만든 것으로 이시영은 이 감찰위원회를 통해 모든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정정화는 단독정부에 반대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영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민족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정정화는 정계에 나가 임정에서 쌓은 정치적 안목을 펼칠 기

회를 찾지 못했다.

『長江日記』에는 세계정세와 역사에 대한 정정화의 인식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가 세계정세를 자세히 설명한 사실은 임정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 중국 등 인접 상황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의 맥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139)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을 둘러싼 세계열강의 움직임과 일본의 치밀한 침략계획을 과소평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국 내에 아무리 막강한 힘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국제정치의 세력판도를 읽을 능력이 없으면 국제질서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피지배의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이다. (129)

위 설명은 1936년 12월에 일어난 서안사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앞서 정정화가 한 말이다. 정정화가 서안사변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배경으로는 서안사변 후에 중국이 일본과 맞서 싸우는 입장을 취했고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인 독립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長江日記』에는 서안사변 뿐 아니라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각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정정화의 안목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이 필요했던 임정의 상황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 서안 사건 또는 서안사건, 시안 사태, 시안 사변(중국어 정체자: 西安事變, 간체자: 西安事, 병음: Xī'ān Shìbiàn)는 1936년 12월 12일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 국민당 정권의 총통 장제스를 산시 성의 성도(省都) 시안(西安) 화청지에서 납치하여 구급하고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당군과 홍군은 국공 내전을 중지하고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 함께 대 일본 전쟁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시안_사건)

임정은 무장투쟁론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은 물론 세계로부터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승인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1941년 10월 임정은 중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 정부에 정식 승인을 요청했다. 임정은 독재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루스벨트와 처칠의 대서양헌장에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런던에 있는 프랑스와 폴란드 망명 집단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면서 임정 또한 망명정부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정정화는 그 원인을 동포의 망명세력 간에 이루지 못한 단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임시정부가 당시 연안에 망명한 우리의 독립동맹계와도 원활한 유대를 맺었어야 했다”(195)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광복군 선발대의 국내 투입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일본의 항복과 해방 소식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회환을 남겼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임시정부의 요원들조차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정화는 해방 후 한참이 지난 시기인 1946년 5월 9일 고향 땅으로 가려고 상해부두에 서 있었다.

간다. 들어간다. 이제야 나 살던 산천에 간다. 전쟁난민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쩌랴. 돼지우리 같은 엘에스티 같은 난민선을 타면 어쩌랴. 거룻배라도 좋다. 주낙배라도 좋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일업편주인들 어쩌랴. (265)

난민이나 거지 떼 취급을 받으며 중국에서 추방당해 난민수송선을 타고 돌아온 정정화 일행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바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미군은 방역과 통관 절차를 이유로 그들을 부산 앞 바다에 사흘이나 더 잡아두었다. 내나라 땅의 주인이 이제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한 사건이었다. 일본 침략자들이 사라진 땅에서는 새로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가 설 때마다 “기어 올라와 설쳐대는 경찰관들의 위세는 왜정 때의 경찰을 그대로 뽑아다 박아놓은 것만 같았다”고 정정화는 회상한다. 해방 후 돌아온 고국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정정화에게 또 하나의 시련을 안겨준다. 남편 김의한은 납북되었고 본인은 부역죄로 옥살이를 경험한다. 그 후 정정화는 특별한 대외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여든여덟에 ‘양자강 푸른 물결 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인 『長江日記』를 남기고 여생을 마감했다.

『長江日記』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기록물이다. 『長江日記』는 정정화 개인의 역사와 임정 및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본인의 선택을 사사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임정에서 맡긴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정정화 선생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너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였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묻게 된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임민창

앞서 썼던 두 편의 글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알리는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운동을 권하기는 했지만, 운동을 글로만 배우기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해온 마니아, 오지라퍼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해왔음에도 아직 운동 수준은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운동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운동이 필요한 이유와 접근 방법 그리고 의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글에서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려고 결심한 건 3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기에 간극을 메우고자 회사에서 살다시피한 지 1년 넘은 시점이었죠. 열심히 일하다 말고 갑자기 운동을 결심한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몸이 약해지고 급기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속되는 야근 및 업무 스트레스와 불균형한 식사가 원인이었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할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타고난 몸이 튼튼한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잔병치레도 많았고 체격도 작은 편이었죠. 그래도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어린 시절에 하는 이런 운동이 무척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어릴 때 많이 뛰놀게 하시길 권합니다. 그
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결심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누구나 그렇듯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센터에 등록을 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가려고 했죠. 시작할 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
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가자고 다짐했지만 그 다
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척이나 바쁘게 돌아가
는 회사의 일정도 이유였지만 처음에 품었던 의욕이
오래가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에게서 찾아
보니 일단 운동이 재미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트
니스 센터에서 PT를 받지 않으면 운동하는 법을 제
대로 알기란 어렵죠. 러닝머신 좀 뛰다가 기구 사용
법을 아는 기구에서 땀을 좀 내고 덤벨 몇 번 들어보
고... 필요한 운동일지라도 재미가 없으니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운동
을 배워 볼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번 피트니스 센터
에서 재미를 잃었으니, 뭔가를 배우는 편이 조금은 더
흥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시작했습니
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 할 수 있
는 첫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배

우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복싱을 배운 첫 날 준비운동으로 했던 줄넘기 3분 3라운드, 총 9분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운동을 마친 후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속소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이틀간은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운동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가자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긴 회복기간이 필요한 자신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내 몸을 소홀히 한 대가를 받는 거라 생각하니 운동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체육관을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복싱을 배우는 즐거움은 확실히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줄넘기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두들기는 즐거움은 회사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복싱 체육관마다 운동방식은 다르겠지만, 줄넘기로 시작해서 복싱의 기술을 배우고, 개인적인 연습을 한 후 근육운동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운동,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전신 운동과 스트렝스(strength)까지 챙기는 상당히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운동 지식이 없어 그것을 알지 못했죠.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운동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야근한 다음날에도 크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는 느꼈지만 일로 인한 피로도가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피로가 줄어드니 업무 효율이 올라가서 일을 더 빨리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시간도 앞당길 수 있었고 그만큼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샌드백을 때리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덤이었죠.

그때서야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은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몸이 변하니 생각까지 변하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며 복싱을 배운지 9개월이 되어갈 때쯤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바뀌어 도저히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9개월이나 재미있게 다녔던 체육관에 갑자기 나가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복싱 기술들을 다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일수록 운동으로 인한 변화는 빠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환경에 몸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9개월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몸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쌓인 만큼 그것을 잃어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복싱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은 운동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체중은 줄었고 근육이 붙었던 몸은 다시 앙상한 몸이 되어버렸죠.

직접 제 몸으로 경험해보니 운동에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운동에서 운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으니 어찌 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운동을 막 시작했거나 운동을 놓은 지 오래되었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기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배우길 권합니다. 저는 복싱을 선택했지만 다른 운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격투기의 거친 이미지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초보시라면 라켓스포츠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

는데다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한쪽만 사용하는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격투기가 아니더라도 전신을 사용하고 무산소와 유산소 영역을 넘나드는 운동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달리기나 수영도 있고 정적이긴 하지만 필라테스도 있죠. 자신에게 맞는,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을 시작해서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고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싱을 그만두고 불과 2개월 만에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안 이상 더 이상 그만둘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고 운동을 할 시간은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운동의 시간을 퇴근 후가 아닌 출근 전으로 옮겨봤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茶)가 들려주는 이야기

김은희

한바탕 가을비가 스산히 내리더니 자연이 토해낸 단풍은 결국 떨켜를 땅에 떨어뜨린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 조절에 그 비밀이 있다. 단풍나무들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분만을 뿌리에 머금은 채 아름답게 나뭇잎을 말려 죽인다. 죽음도 이 정도는 되어야 찬란한 죽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온 세상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가을비마저 내리면 누구나 운치있는 곳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싶을 것이다

차... 참으로 오묘하다. 제각기 모양이 다른 100ml 안팎의 물 한잔에 철학을 가득 담고 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차에 대해 소박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차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4~5세기경에 만들어졌고 승려들이 약용으로 마시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음료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차를 밥 먹듯 마신다하여 다반사라는 말이 생겼다. 차를 마시는 일은 점점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급기야 다도라는 종교와 맞먹는 수준의 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차 문화가 격상되면서 품격 있는 다기를 갖추기 위해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중국은 그리하여 우수한 도자기를 만드는 차이나 왕국이 되었다. 차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웃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중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에 유학 온 일본 승려들이 차나무를 가져다 심고 차를 전파하면서 일본인들은 차 한 잔에 역사와 철학, 미학



을 정립시킨다. 일본에서 처음 차를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엄격한 수준의 다도문화를 확립했었다.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은 다도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창기 일본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과 좋은 질의 흙이 없어 중국 찻잔을 선호했다. 하지만 중국 도자기는 너무 화려하여 내면을 수양하는 다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중 고려도자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고려도자기의 은은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에 일본은 화들짝 놀라게 된다. 16~17세기에 일본에서 유행한 찻사발은 조선 막사발이었는데 고려다완, 이도다완이라 불린다. 이도다완은 그릇모양이 우물입구처럼 생겼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무명옷에 삶의 애달픔을 물레질하며 만들어낸 막사발은 우리 선조들이 국그릇, 밥그릇, 막걸리사발로 쓰던 것들이다. 그런 이도다완 즉 조선막사발 100여점이 지금도 일본 명문가와 박물관 깊숙이 보관되어 있다한다. 일본은 1953년에 조선막사발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이웃나라에서 우리 막사발의 가치를 더 알아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본 다도에 쓰이는 차는 말차이다.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차원이 다른 이상한 차일 것 같지만 그냥 녹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다. 말차는 중국 송나라시절 차를 마시던 풍습에서 전해져왔으며 말차의 생명은 풍부한 거품을 얼마나 잘 일으키느냐에 달려있어 거품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 그런 자연의 녹색가루를 심미적으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릇은 오직 조선막사발 밖에 없다.

일본인들은 사물의 미를 완벽한 대칭에서 찾는다. 그런 일본사람들에게 막사발은 엉뚱하고 엉성한 미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충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만들다 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투박하고 거칠기까지 한 막사발은 일본인들이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소박한 미로 그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전라도 지역에 차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아 차가 문화로 자리 잡기에 힘들었다. 고려시대에 차 문화가 잠시 번성하는 듯도 했지만 조선 건국 후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차보다는 주류문화에 선비문화가 맞추어진다. 어쩌면 잘 차려진 주안상에 차 문화가 밀려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이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문화수탈이 곳곳에서 행해지면서 조선 도공들을 씨를 말리듯 끌고 간다. 그 전쟁의 장본인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차 사랑은 어느 누구보다 각별했다. 정치를 할 때도 그의 옆에는 항상 센노리큐라는 유명한 차 선생을 모셨고 전란 중에도 차실을 마련하며 차를 공경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조선막사발 사랑은 과히 광기 수준이었다. 그때 조선에서 들어온 고려도자기나 막사발은 사무라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존귀한 물건이 되었으며 공로를 세운 사무라이들에게 조선도자기는 가보로 남길 만큼의 국보급 하사품이 되었다.

“우리가 조선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원했던 찻사발 전쟁에서는 이겼노라.” 그들이 한말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때 끌려간 도공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유명한 도공 이삼평은 후쿠오카에서 20년 만에 고령토를 찾아내 이도다완을 만들어내고 일본은 이도다완에 일본 색을 드리우는 기술로 도자기와 다도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한다. 그때 도요도미 히데요시나 사무라이들이 이웃나라를 정복해 그 막사발에 마시는 말차 한잔이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차 한 잔은 행복의 극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깨진 도자기처럼 비극적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차 사랑하면 서양이나 유럽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동양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고 편파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지만 동양문화 중에서는 한 점 의구심 없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차 문화이다. 참으로 이상한 건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양과 서양이 찻잔 속에서는 만나왔다는 사실이다. 서양인들은 아침의 모닝커피를 즐기는데 유럽에서는 특히 오후의 홍차를 즐긴다. 그들은 우리의 종교와 윤리를 비웃으면서도 홍차는 머뭇거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미 차는 언어를 넘어 세계 속의 가장 빠른 소통의 물질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전쟁도 차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 아편전쟁이나 커피생산지인 식민지에서 열강들이 일으킨 전쟁은 차를 마시기 위한 전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사람과 소통할 때 “차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을 건넨다. 차에는 은근함이 들어 있다. 차 한 모금으로 입술을 적시고 목으로 넘긴 후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을 때, 그 찻잔 내려놓는 소리는 마치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음 같다. 그래서 차 한 잔에는 상대방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섞여있는 듯하다. 차 한 잔을 같이 할 때는 말해야 할 것만 말해야 할 것 같다. 그 이상을 말하고 싶을 땐 차 한 모금을 또 마시며 머뭇거린다. 하지만 정작 말하고 싶은 순간에 찻잔은 늘 비어있다. 그러면 멈추어야 한다. 어쩌면 차 한 잔이 알미운 절제감에 대해 알려주는지도 모른다. 차에는 포도주의 거만함이 없고 커피가 주는 강한 중독성도 없다. 하지만 차 맛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미묘한 매력이 있고 그런 차 한 잔을 앞에 두면 내면이 고요해진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에 알 수 없는 마음이 담긴다. 순간 마음이 가지런해지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은 작은 소망도 샘솟는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그리운 사람, 지나간

추억이, 남기고간 시간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가을이 차 한 잔에 담긴다.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오감으로 맛보아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마음깊이 들어찬다. 차에는 오감이 있다.

귀로는 찻물 끓이는 소리

코로는 차의 은은한 향기

눈으로는 찻잔에 비치는 차의 빛깔

입으로는 차의 맛

손으로는 차의 따뜻한 감촉

석양 너머로 가을이 고요히 떨어진다. 이럴 때 차 한 잔이 제격이다. 차 한 잔을 너무 형식과 격식, 도를 운운하며 마실 필요는 없다. 오늘 하루 주어진 햇살 한 점, 바람 한 점처럼, 그저 오늘 기분에 맞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오늘이 될 것이다. 그저 차가 있기에 차를 마시고, 무심하게 생각조차 느끼지 않으며 얹은 미소 속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진정한 차의 내면이 될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일상으로 마시는 차 한 잔. 그 평범함에 소소한 행복이 깃들어진다면 만추의 가을밤은 그 어떤 날보다 찬란한 밤이 될 것이다.

이제 계절은 우리를 텅 빈 곳으로 이끈다. 위대한 자연이 스스로 걸치레 옷을 벗는다. 숲의 바닥은 무성했던 초록을 갈잎으로 바스락거리게 한다. 온기 하나 없을 것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쓸쓸함을 자처한다. 이런 자연을 일상화된 차 한 잔으로 포근히 매만져 주면 어떨까?

우리, 차나 한 잔 할까요?

어서와 블라디보스토크는 처음이지?

김해경

첫째 날 : 굿모닝 블라디보스토크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 후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음악으로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그 옛날 발해의 영토, 연해주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를 3박 4일 일정으로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블라디(vladi:정복하다)와 보스톡(vostok:동쪽)’이 합쳐진 말로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뜻으로 동해 연안 최대 항구도시 겸 군항이다. 소련 극동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해군기지이자,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종점이며,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지방 최대 어업기지이며, 포경선·계 가공선·냉동선의 근거지이다. 겨울철에는 항구 안이 다소 결빙하지만, 쇄빙선을 사용함으로써 1년 내내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다.

탐방 첫날(4월 25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간 곳은 독수리 전망대였다. 독수리는 온 데 간 데 없어서 독수리 전망대라는 이름이 무색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탁 트인 곳이었다. 바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머지않은 봄소식을 전해 주는 것만 같았다.

해양공원 옆에 있는 군사박물관(요새 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 노후가 심한 각종 무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실내에도 총기류와 동

상도 전시되어 있었으나 영어로 안내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러시아 글자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자세한 건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 박물관은 한글과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것인지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아무튼 영어랑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

해양공원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였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산책하는 가족들, 청춘 남녀, 어린이들. 오후 6시 훨씬 이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녁이 있는 삶 그 자체가 너무나 부러웠다.

해양공원을 쫓 건다 보면 아르바트 거리가 나온다. 모스크바에 있는 아르바트 거리를 본떠 만들었는데 군데군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분수대가 있다.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젊은이들이 길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이다. 주로 카페와 호프집,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술의 거리 느낌이 난다, 길 양쪽에는 유럽풍의 건물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날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침 일찍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우수리스크까지 약 30분 간 시베리아 횡단열차 체험을 했다. 출근시간이 지나서인지 기차 안에 러시아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기차역에는 여자 역무원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무려 25년간(1891~1916) 약 10억 루블을 들여 건설했다. 이 철도의 길이는 지구 둘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288km(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다. 시속 80~90km의 열차로 이 거리를 주파하는 데만 꼬박 6박 7일(156시간)이 걸리며, 달리는 동안 경도차에 따르는 지방시(地方時)는 일곱 번

이나 바뀐다. 이 철도는 9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를 지나가며 16개의 강을 건너간다.

우수리스크에는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최재형 생가,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다. 이상설은 1907년 고종의 밀지(密旨)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李儁), 이위중(李瑋鍾)과 함께 참석했다.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전 세계에 알리려 하였으나 일본의 계략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 이준은 자결을 단행,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 본국에서는 일본의 압력으로 궐석재판(關席裁判)이 진행되고 이상설은 사형이, 이준과 이위중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그래서 귀국을 단념하고 영국·미국을 거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유인석(柳麟錫) 등과 성명회(聲鳴會)를 조직, 국권침탈의 부당성을 통박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발송하는 등 세계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 관헌에게 붙잡혀 투옥되었다. 이상설 선생은 1917년 3월 2일 48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화장하여 수이푼 강에 뿌려달라는 이상설 선생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최재형 생가는 외관만 있을 뿐 내부는 복원 공사로 인해 텅 비어 있었다. 최재형 선생이 거주했을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몹시 아쉬웠다. 최재형 선생은 1877년 17세가 되던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장사로 돈을 모았으며 1908년 4월 안치혜에서 이범윤, 이위중, 엄인섭, 안준근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했다. 항일의병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금을 내놓았다. 1919년 4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그 해 11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1920년 4월 일본은 니항사건을 빌미로 연해주 일대에 출병하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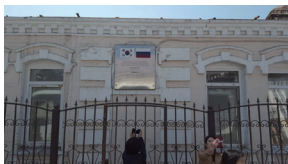


이상설 유허비

베리아 혁명군과 한인의병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최재형은 우스리스크에서 체포되었으며 이송 도중 탈주를 시도하였다가 총격을 받고 순국하였다.

2009년에 개관한 고려인 문화센터에서는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와 아리랑 노래와 관련된 자료, 고려인과 관련된 소설 및 각종 책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우스리스크에서 고려인은 한 명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최재형 생가 복원을 위한 기부금 함이 있어서 거기에다 기쁘게 투척했다. 몇 년 전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방문했을 때에도 기부를 했는데 마치 무슨 대단한 애국이나 하는 것처럼 벅차올랐다.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로 인해 고려인이 발생했고 아직도 러시아 땅에서 차별과 역경을 겪고 있다. 이상설 선생, 최재형 선생의 유적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 옆에 이상설 유허 비석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최재형 선생 생가는 외관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서 고작 이거 하나 보려고 이 먼 길을 왔는지 허탈감을 느꼈다. 마치 생가는 최재형 선생 체포 당시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처량하고 안타까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동안 <암살><밀정>등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접해왔지만 연해주와 관련된 독립운동에 관한 것은 거의 접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해주를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 역사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재형 생가 최재형 선생

#셋째 날 : 루스키 섬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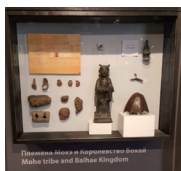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루스키 섬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동해 연안에 위치한 섬이다. 섬의 이름은 동시베리아를 통치한 니콜라이 아무르스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더불어 이 섬은 소련 시절, 군사기지로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크론슈타트에 비교되어 극동의 크론슈타트라고도 불리고 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쌀쌀해서 바다 가까이까지 걸어 갈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막상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탁 트인 바다를 시야에 담았다. 해변에는 신기하게도 횃집이나 펜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바다처럼 소금기 가득한 짭조름한 바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갈매기도 많지 않았다.

루스키 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대 규모의 유일한 대학교이며, 캠퍼스다. 블라디보스토크 4개 대학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학교다.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안에 해변가가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양지로도 이용된다.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투어를 했다. 대학교 건물, 러시아 자원, 북한 유학생, 유학생들 등에 대해서 한국 유학생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캠퍼스가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해변가를 산책하고 수영도 하고 기숙사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루스키 섬을 둘러보고 나니 점묘법의 화가 조르주 쇠라의 <그랑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 속 인물처럼 산책도 하고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은 1890년에 설립돼 40만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다고 한다. 자연사, 고고학, 민속학, 종교, 역사학, 근현대 자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물관 유물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기에 유물을 보기만 해야 했다. 2층 전시실에서 우연히 발해 영문 표기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 블라디보스토크가 과거 발해 땅이었다는



발해유물

사실을 이곳에서 느끼게 되어 감회가 더 새로웠다. 박물관에서 발해를 아주 잠깐 만날 수밖에 없는 점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다.

마지막 날 : 조별 미션을 마치며

4월 28일 마지막 날 혁명광장과 그 주변에서 조별 미션을 수행했다. 혁명광장에서 동상을 배경으로 조별로 점프 샷 찍기, 혁명광장 동상과 동일한 포즈로 단체사진 촬영하기, 마트로시카 인형 들고 인형과 같은 표정 짓기, 러시아인과 함께 사진 찍기, 러시아 잡지 구입 및 노점상 음식 구매하기, 커피숍에서 커피 구입 등의 미션 수행은 흡사 런닝 맨 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팀워크를 힘껏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팀 에너지와 승부욕에 대한 열정이 마구 분출했다.

비록 우리 조가 우승도 못했고 맛없는 러시아 카페 라떼 때문에 뒷맛이 영 개운치 않았지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점에서 잡지를 살 때였는데, 상인이 잔돈이 없어 팔지 못한다고 해서 난감했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잔돈을 미리 준비해 오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옆 가게에 가서 잔돈을 구해서라도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을 텐데 러시아 상인은 사든지 말든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가 놀라웠다. 미처 사지 못한 물건을 사려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안에 있는 상점에 갔다. 우리나라 김포 공항보다도 작은 규모였고 물건도 별로 없어서 놀라웠다.

아무리 좋은 곳도 함께 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좋은 곳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다. 그러나 최상의 곳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같이 먹는 음식도 맛있고 장소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역사 탐방이었다.

마을 주민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2 시민정치와 노동조합

홍승완

시민이란 누구일까?

최근 경기도의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의 일이었다. 시민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강사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날 시민이라고 하면 뉴요커나 파리지엔 또는 서울시민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시민이지만, 근대사회에 이르기 까지도 여성들과 빈민들은 정치에 참여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가 일찌감치 발달한 고대의 아테네에서도 여성은 시민이 될 수 없었다. 이렇듯 시민권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와도 관련된다. 현재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두고 새로운 논의들이 생겨나는 중이다.

시민과 민주주의

시민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demo(국민)와 kratos(지배)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법 질서와 기본권을 정한 최 상위 규범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왕이나 귀족이 지배하는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가지는 권력의 원천은 대한
민국 국민인 것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
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라 하면 다수결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
만 다수결은 만장일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차
선택일 뿐이며 민주적 의사결정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다수결을 행
한 범주의 문제 등 비롯하여 다수결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다수가 되어 청년에 관한 정책을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져 있
는 다수의 입맛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어느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각자
의 의견을 개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견의 엇갈리는 부분
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떠올리고 고려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는 한계가 보완 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최악의 의
사결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시민은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방법으로는 시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 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으나 대한민국

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의제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행사마저도 소홀히 하는 등 정치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세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최근의 광화문 촛불집회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가득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은 투표권행사를 반드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에도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정치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정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각종의 근로(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생활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깊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와 노동자는 동의어다. 법률에서는 근로자라는



전태일 기념상
(출처: 노컷뉴스)

표현을 쓰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초창기의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가혹하게 만들었다.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농촌으로부터 수많은 인력들이 도시로 상경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이 틈을 타 부르주아들이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했다.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이라면 결국 재화를 소비할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받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에게 집단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등의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인 사용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근로시간은 늘리고 싶어 하고 임금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용자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관행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창출의 주체인 시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의 권리는 힘겹기만 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노동조합은 그냥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인 시민이 각종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뭉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시민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막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직장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구어 나가는 노동운동의 정치화가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노동조합이란 지난호인 정령야책 제2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호를 참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헌법(제33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쿠팡서비스 등을 이에 해당한다.

스케치여행이 그려낸 성북의 도서관



스케치여행은 2014년 마을에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취미활동 동아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를 했는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친목도모는 기본이고 이슈가 되는 곳이나 역사적인 성격을 지닌 곳을 직접 보고 그립니다. 우리의 스케치가 단지 스케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맞물려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로 소통하고 참여합니다. 그 동안 이슈가 되는 많은 곳을 그리고 “한글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돈의문 박물관” 등에서 전시를 했지만 성북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특별히 더 아끼며 성북구 관련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케치여행에서 이번에는 성북의 도서관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린 성북의 도서관 그림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신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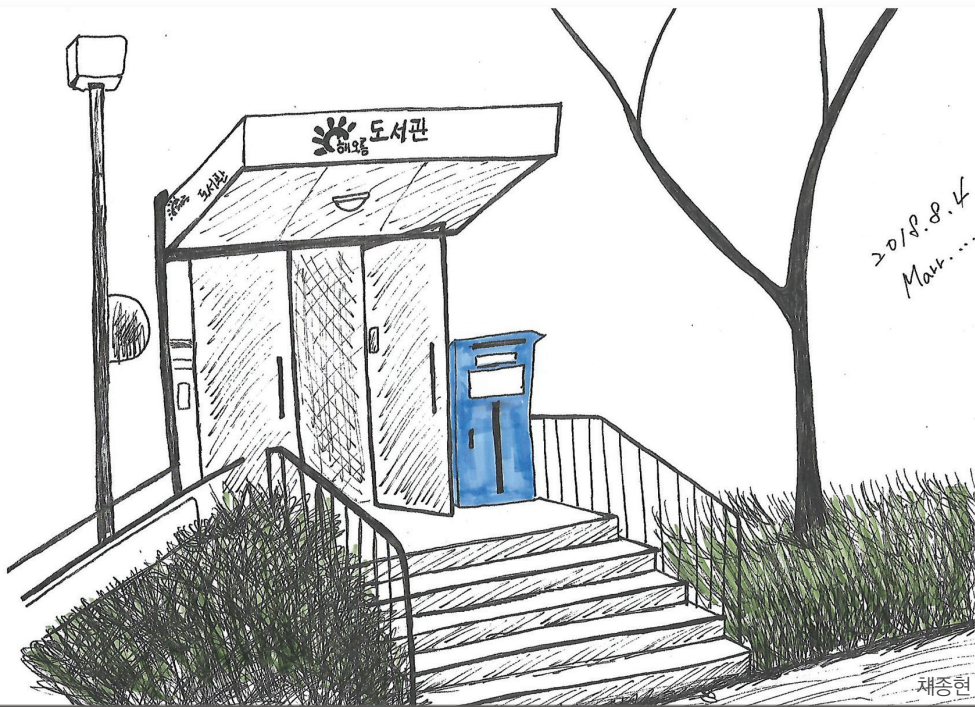
2018. 6.

중남동새빛도서관

원목학자나 계단 밑 숨은 공간도 참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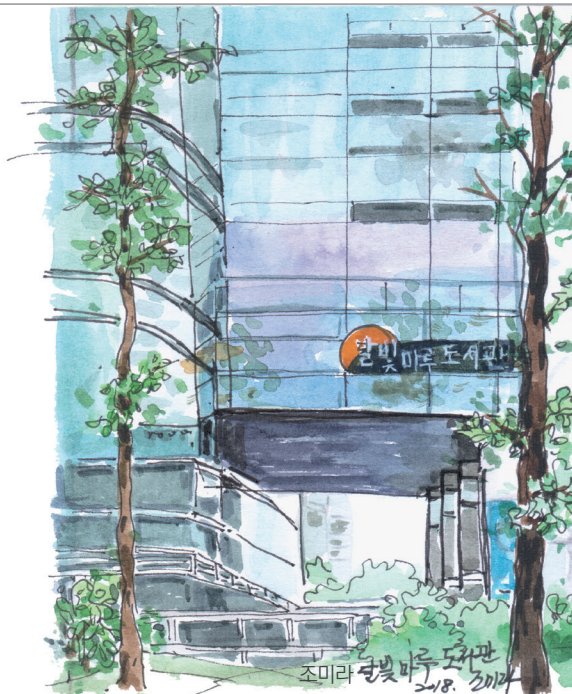
남 이곳 테라스가 가장 마음에 든다

HYUN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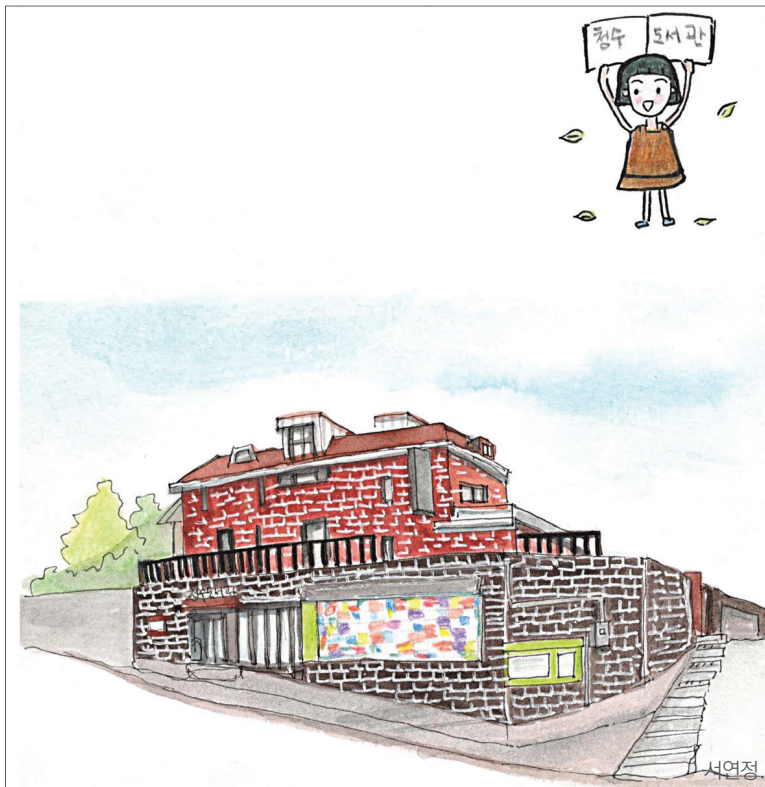




달빛마루 도서관







2019
야채문학

<동시>

달리는 축구공

류시우

축구 시작

등근 축구공을 힘껏 찬다

우린 뽐뽐 차서 재미있지만

공은 힘들다

그래도 공은 달린다

등근 공은 계속 계속 달린다

<동시>

내 입

류시우

내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내 입은 영어도 말하고, 답도 발표한다
내 입은 말도 하고 숨도 쉰다.
친구랑 대화도 하고, 놀 때도 말을 한다
그리고 소중한 엄마에게 좋은 말도 할 수 있다

<동시>

내 동생

류선우

내 동생은 장난꾸러기
받아쓰기는 50점
책상은 어지럽다
나랑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다
공룡도 잘 알고
그림도 잘 그리고
퀴즈도 잘 만들고
그보다 더 잘하는 건
바로
활짝 웃는 그 미소!



나라를

지키는

마리

박건희 7살

<시>

정릉골

김진태

정릉천 구비구비 휘돌아 흐르누나
청수장 지나치니 내원사 오르막길
감로천 한모금에 무더위 떠나가네
칼바위 능선길옆 냉골천 시원쿠나
범골천 내려오니 넓다란 냇적바위
내님과 올라서서 나란히 누워보니
쪽빛뎌 하늘위로 흰구름 등실등실
오만것 그려가며 유유히 흐르누나

<시>

하늘

김진태

하늘은
큰 도화지
쪽빛 하늘 저편에
몽게 구름 나타나서
생쥐도 그리고
얼룩 소도 그리고
호랑이도 그리네
싫어지면 다 지워버리네
하늘은 큰 도화지
이쪽 저쪽 하늘에서
몽게구름 피워나
채송화도 피우고
봉숭아도 피우고
나팔꽃도 피우네

찬란

이혜성

무채색의 시간들
무채색의 공간들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언젠가 나 덮쳤던 그날
세상에서 가장 추웠던 날
세상에서 가장 시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무너진 날

못내 아쉬워서 오늘도 쓰린 가슴 붙잡고
나는 사는 동안 한이 가득한 숨만 거칠게 내어 쉬며
어찌 날 두고 돌아서나
어찌 모질게 고개를 돌릴 수 있었나
모질게 돌아서 가는 길 내가 어른거리 해매진 않았나
원망스러운 그대 마지막 모습 꺼내어 미워하다가
그대 또한 슬픔에 겨워 마음이 무거웠겠지
미어지는 온몸 힘주어 돌아섰겠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로 나를 위로하오

그래도 그대는 안녕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나마 마음 안아줄 수 있었겠소

내 세상이 무너졌던 그날이
다시 날 향해 고요하고도 거칠게 다가올 때
난 과연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동안 추억 고이 마음에 잘 심어서
꽃피워서 그간의 이야기들 한 아름 안고 가겠소

잊기엔 너무 아름다워 숨길 수도 없소

<시>

나무야, 나무야

김채영

겨울나무야,
겨울, 봄, 여름, 가을 언제가 좋아?
견뎌야 한다면
난, 여름.

언덕위의 나무야,
산 속, 강 옆, 아파트 내, 시골 길
어디가 좋아?
그리운 이와 함께라면
난, 어디든.

동물원의 나무야,
동물, 식물, 새, 사람 누구의 방문이 좋아?
난, 말 못 해.

가시나무야,
장미, 벚꽃, 커피, 단풍 중 뭐가 좋아?
난, 꽃보단 열매 사과.

눈꽃 핀 나무야,
바람, 토네이도, 비, 햇빛 뭐가 좋아?
난, 소낙비.

므두셀라 나무야,
너의 나이테가 4900개 이상이라며?
나의 나이테는 52개야.
너의 삶은 옳았어.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는 거.
텅 빈 가슴으로 사는 거
너의 빈 가슴이 많은 나이테를 지닌 비결을 말해주는 거지.

난 가슴을 비울 수가 없어.
텅 텅 비우고 싶어.
많은 나이테는 부럽지 않아.
하지만 좋은 기억만 남기는 비결은 부러워.

너는 여름을, 나는 겨울을

조성권

우리가 다른 것 중 제일 큰 하나는 좋아하는 계절이 다르다는 거였다.
나는 뜨거운 여름만 되면 온종일 몸이 처져 힘을 못 쓴다.
예전에는 꽤나 여름을 잘 견뎌낸 것 같은데 말이다.
반면 그대는 겨울이 힘들다고 했다.
겨울만 되면 잠이 쏟아지고 뼈까지 아프다곤 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자.
봄에는 둘 다 힘들어하는 게 없을 테니 마음 다해 사랑해보자.
재지 말고 아끼지 말고 쓸 수 있는 마음 다 써 사랑해보자.
그러다 꽃이 지고 여름이 오면 그대가 내 곁에 와주라.
나는 가벼운 옷차림 하나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을에는 내가 알레르기로 힘들긴 하지만 봄이랑 비슷한 거쯤으로 해
두자.
낙엽 지고 겨울이 오면 내가 그대 곁에 더 많이 다가가 눈 앞에 서겠다.
그대 눈앞에 내가 발맞춰 서면 나 한번 꼭 안아주라.
나는 그거면 된다.
이렇게 변치 않는 12번의 계절이 지나면 내 손 잡고 걸어가자.
우리 이렇게 함께 사계절을 살아가자.



새

이밥

<전편의 줄거리>

아주 오래 전 우주는 거대한 새들의 세상이었고 새들은 어느 별에서 건 자신의 삶을 즐기며 온 우주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나 (봉황 수컷 ‘봉’)는 태양을 삼키려던 (봉황 암컷) ‘황’에게 돌진하였다가 그만 그와 더불어 황홀경에 빠진다. 1억5천만년 후 황홀경에서 깨어보니 우리 외에 큰 새들이 하나도 없다. 지구화 - 새들이 모두 지구형 행성들에 모여들어 공룡이 돼버린 사건 -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른 큰 새들을 찾던 중, 어느 지구에서 까치를 만나고 까치는 그 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6. 멸종 - 까치와 황이의 문답

빅뱅 이후 우주는 각각의 별에서 쏟아내는 빛과 열을 따라 팽창을 계속 해가며 팽창음을 만들어내는데 어찌나 그 소리가 아름답던지 우주의 누구라도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면 언제까지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픈 마음이 가슴에 차오르곤 했었다. 후대에 지구에 나타난 인간들 중 이 소리를 들었던 이들은 그 소리를 울려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이 우주의 음악은 어떤 이름으로도 답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음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빅뱅 이후 우주의 구성원들은 모두 음악에 맞춰 각자의 춤을 춰가며 질

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억5천만 년 전 우주의 지구화가 시작되면서 새들은 급격히 우주의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다. 혼자서만 빛과 열을 독점하겠다는 탐욕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우주의 음율과 리듬에 몸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고, 우주의 음악이 들리는 상태에선 도무지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 어떻게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그를 먹어치운 후 그가 지니고 있던 태양의 빛과 열을 자신의 몸에 저장하고 그 배설물과 먹고 남은 찌꺼기마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풀과 나무의 거름으로 삼아 더 많은 빛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 그 ‘일’만이 지구화된 새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된 것이다. 깃털을 뽑아버리고 공룡이 돼버린 새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원래 얼마나 큰 세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 모든 기억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들이 새였던 시절 우주에서 바라보노라면 지구는 먼지처럼 작았다. 하지만 우주의 음악에 불협하며 공룡이 돼버린 그들은 지구만이 세상 그 자체라 느끼며 오로지 지구 전체에서 빛과 열이 제일 많은 존재가 되기 위해 ‘일’ 하고 ‘일’ 하고 또 ‘일’을 했다. 깃털을 뽑아버린 후 쓸모없어진 날개는 점점 퇴화했다. 가슴팍에 크게 솟아있던 날

개 뼈는 점점 작아져 후대 지구에 등장한 인간들이 그들의 화석을 보고 공룡들은 가슴에도 꼬리가 있었나 착각할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퇴화했다. 인간들은 가슴팍에 달랑달랑 겨우 붙어있는 듯한 그 꼬챙이 같은 뼈를 도무지 날개로 볼 수 없었다. 깃털을 없애고 날개 뼈를 퇴화시킨 그들은 남들을 물어뜯기 위해 이빨과 입만 유독 단단히 키웠고 상대방 누구라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아니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기를 꺾어 놓으려 몸집만 유난히 키웠다. 빛과 열을 온통 자신의 몸에 쌓아두려 했으니 몸이 비대해지지 않을 도리도 없었다. 아무튼 새였던 공룡들은 좁디좁은 지구에서 자신들의 몸만 팽창시켰는데 …, 딱 그 때쯤이었다!

아름다운 소리만을 내며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던 우주가 자신의 소리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우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주의 질서에 반하여 빛과 열을 독점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이기도 했다. 조율이 필요했다. 우주는 지난 130억 년 간 자신이 내는 소리에 너무 심취하여 줄이 느슨해지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조금 씁스러웠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며 빅뱅을 함께 만들어낸 모든 존재들에게 미안했다. 아이쿠야 이렇게나 내가 무심했구나. 줄이 느슨해지는 줄도 모르고 연주했었다는 씁스러움에 은근슬쩍 늘어진 줄에 맞춰 조바꿈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제 와서 조바꿈을 한다는 것은 빅뱅 이후의 조율을 함께 고민했던 모든 빅뱅 참여자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씁스러움 때문에 더 큰 미안함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우주는 바로 조율을 시작한다. 빅뱅 당시 우주의 크기는 지금의 인간들이 즐긴다는 야구의 공만 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우주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다. 빅뱅 당시 우주의 팽창을 비롯하여 빅뱅 후 벌어질 모든 사건들을 완벽히 계산했다고 확신했었으나 130억년의 시

간은 완벽마저 무너뜨릴 만큼 긴 시간이었다. 이런저런 감정에 빠질 것 없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할 것도 없다. 허무한 감정과 자책에 빠질 시간도 아깝다. 우주는 마음을 잡고 바로 조율에 착수했다.

팽창만 하던 우주에 130억년 역사상 처음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수축. 우주 구성원들 모두가 처음 겪어본 사건이었다. 멀리멀리 달려갈 줄만 알던 빛과 열이 130억년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벽을 느낀다. 벽에 부딪힌 빛과 열의 파동들은 휘어지고 튕겨 반사된다. 잠시 우주가 우르르 흔들린다. 모든 항성과 행성들, 먼지들과 암흑물질들이 함께 흔들리며 다시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다만 먼지들과 암석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항성이나 행성에 비해 자신의 자리를 잡기 전까지 조금 길게 우왕좌왕 좌충우돌 했는데 ... 아!

이 암석들과 운석들의 좌충우돌은 공룡이 돼버린 새들에겐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 우주가 흔들리고 모두들 새롭게 자리를 잡을 무렵 우주를 부유하던 먼지들과 암석들이 부스스 일어났다. 만약 새들이 그 시간에도 모두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었다면 당시 우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먼지들과 암석들을 피해 새들 또한 이리저리 날아다녔겠지! 날아다니는 먼지들과 암석들은 모두 운석이 되어 저마다 빛을 뿜는 꼬리들을 휘황찬란하게 달고 다녔겠지! 그리고 그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나는 새들의 모습은 한판의 춤이었겠지! 우주 전체가 번쩍 번쩍 상들리에 휘휘 돌아가는 춤판이었겠지! 조율은 불편한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축제였겠지!

그러나 ... 모든 우주 구성원들에게 축제였을 우주의 조율은 지구들에서 이전투구를 일삼는 공룡들에게는 일대 재앙이 되고 말았다. 빅뱅 이후 우주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던가? 관성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진과 정지가 불가능했던 먼지들과 암석들은 처음에 힘을 받은

반대방향으로 끝없이 날아가야 했었고 이들이 운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충돌뿐이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먼지들과 암석들이 우주 전체를 쏘다니던 이 시절 지구형 행성들에선 늘 대폭발과 대화재가 일어났다. 적당히 분포돼있던 수소는 그 자체가 폭발물이었고 수소 이상으로 많이 분포돼있던 산소는 기폭제로서 충분했으며 가장 많이 분포돼있던 질소는 풀과 나무의 형태로서 화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절 폭발과 화재는 다른 행성들에 비해 유독 지구형 행성들에서 빈번했다.

제 얘기를 듣고만 계신 게 너무 지루해 보이시는군요아악.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 드릴테니 한번 맞춰 보세요오까아악. 아까 큰 새님께서 제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겠습니까요오까아악. 이 정도 애길 들었으면 왜 저희같이 작은 새들만 살아남았는지 아실 수 있겠죠오까아악?

황홀경에서 아직 헤어 나오질 못 한 것일까? 아니면 까치의 얘기에 너무 심취했던 것일까? 나는 까치의 질문에 도무지 답을 할 수 없었는데, 내 머리 보다 한참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까치 얘기를 듣던 황이 답을 시작한다.

까치야, 너는 우리에게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깃털을 유지한 채 살 수 있었던 건 너희의 몸집이 너무 작았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큰새들은 몸집이 작은 너희들을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겼었겠지. 너희들을 먹어봐야 너희에게서 얻을 수 있는 빛과 열이 적었고, 너희 스스로도 깃털을 뽑아봐야 그 깃털로 만들 수 있는 흙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거야.

아! 황이는 몸만 나보다 큰 게 아니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도 든다. 지난 1억5천만년의 변화를 황이는 모두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황홀경에는 나 혼자만 빠져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문득, 황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황이는 지난 1억5천만년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자기의 이야기를 더 들려준다. 황이가 정답을 얘기할 것이라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까치도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나와 함께 황이의 얘기를 듣는다.

작은 새들에게 지구로 날아드는 운석과 그로 인한 폭발과 화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큰새들에게 그 사건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들이 여전히 새였다면 그깟 날아드는 운석들 쯤이야 춤추듯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불이 난 지구를 잠시 떠나도 그만이었으나, 아 자업자득 자업자득! 큰새들은 이미 새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너무나 비대해진 몸집으로 쥘쥘하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기에 운석 자체에 맞아죽는 공룡들의 수 또한 엄청났다. 맞아죽고, 폭발된 나무와 풀들의 파편에 찢려죽고, 불에 타죽었는데, 죽어가던 공룡들은 유독 그 비명소리만 드세었다. 끼룩끼룩 끼루루룩 끼룩끼룩 끼루루룩. 우주 전체가 춤의 축제를 벌이던 그 시절 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잘난 체하던 지구들은 10조개의 아수라장이었고 10조개의 불지옥이었으며 10조개의 소음이었다. 끼룩끼룩 끼루루룩 끼룩끼룩 끼루루룩. 이 대목을 읊어주며 황이는 죽어가던 새들, 아니 공룡들을 대신하여 끼루루룩 거리는데, 눈물마저 똑똑 떨어진다.

끼루루룩 그 소리 어찌나 구슬프던지 나는 황의 품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나를 바라보던 까치 또한 까악까악 눈물을 쏟는다. 아! 새들이여 그대들은 어찌도 그리 바보 같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은 어느새 분노가 된다. 아! 이 바보들아. 아! 이 바보들아. 우주의 음악에 맞춰 살아도 되지 않았더니! 우주의 음악에 맞춰 살던 때가 훨씬 신나지 않았더니! 그 때도 우리는 빛을 맞았고 열도 쬔것였다! 이 바보들아 그게 충분치 않았

더냐! 분노는 하염없이 눈물 되어 쏟아지는데, 나를 안고 있던 황이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한다.

봉아, 너와 내가 황홀경에 빠져들었던 그 순간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새가 우주 전체에 우리 말고는 없었을까? 난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해. 우리를 재앙에 빠트린 지구화 속에서도 몸을 보존했던 친구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큰 새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거야. 이 건 짐작이 아니야. 나는 지금 분명히 그들이 느껴지거든.

어쩐지 지난 1억5천만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황이 덕인 것만 같다. 윤석이 우리 자리만 피해서 날아다녔을 리 없었을 텐데 …. 아마도 황이는 날아드는 윤석들을 나를 안은 채 피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야. 고마운 나머지 황이를 꼭 안아주려 하는데, 아! 역시 황이가 크긴 크다! 날개를 아무리 널리 펴도 내 한 쌍의 날개는 여전히 황의 품안에서만 허우적거릴 뿐이다.

큰 새시여, 그대 몸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대 애인에 비하니 그대는 너무 작아옵니다까아악. 혹시 애인이 아니고 더 큰 새님이 혹시 그대 어머니가 아니신가요까아아아악kakkak. 그대는 혹시 저 보다도 어린 꼬마새가 아니신가요까아아악kakkakkak. 황이를 안아준다는 것이 까치 눈에는 황이에게 매달려 버둥거리는 꼴로만 보였는지 까치는 황이의 꾸루룩 소리에 맞춰 언제 그리 구슬피 울었었냐는 듯 킁킁kak kak kak 내 주위를 뱅뱅 돌며 배꼽을 잡고 웃어젖힌다. 이거야 원, 큰 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음, 까치야 너 또한 지구화 이후로 내내 지구에만 있었느냐? 혹시라도 우주 어디에선가 아직도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리같이 ‘큰’ 새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어느 때보다도 근엄한 목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 특히 ‘큰’을 발음할 땐 다른 어

느 소리보다도 또렷이 발음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까치가 누구더냐. 그럴 필요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 열화와 같던 지구화 바람 속에서도 새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지구의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새가 아니더냐.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여간 닳고 닳지 않았을 리 없는 새다. 내가 자존심이 구겨져 ‘크다’고 강조하는 것을 까치가 어찌 모를 소냐.

까르르kakkak kak르르kakkak 어련하려구요 크고크고크고크고크으은 새시여 까르르kakkak kak르르kakkak. 까치는 내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kakkak kakkak 더더욱 배꼽을 움켜잡고 내 주위를 빙빙 돈다. 어이쿠, 이 놈과 말을 더 섞다가는 본전도 못 뽑겠다 싶어 나는 얼른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 봤다는 것이냐 못 봤다는 것이냐? 나는 근엄함을 거두고 ‘크다’는 단어는 완전히 뺀 채 까치에게 다시 물었다. 지구화 이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까아악. 다만, 큰 새들을 봤다는 얘기는 들어봐습니다아까아악. 약아빠진 녀석이다. 더 이상 나를 놀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까치 또한 바로 진지하게 답을 한다.

정말로 큰새들이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길 네게 해주었더냐? 까치의 답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는 재차 묻는다. 저 같은 까치와 까마귀들 중에는 큰새들을 봤다 얘기하는 치들이 있답니다까아악. 그래? 그 치들은 어디서 큰새들을 봤다더냐? 아니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 까치들과 까마귀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글썄요.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까아악. 한 두어 달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요오오까아악. 이제 두어 달 후면 칠석이라 저는 건우성과 직녀성을 잇는 오작교를 지으러 우주로 나가는데, 그 때엔 온 우주의 까치들과 까마귀들이 모두 오작교 공사장에 모인답니다아까아악. 그 까치들과 까마귀들 중에 큰 새들을 봤다 얘기하던 치들

을 본적은 있습니다아까아악. 허나, 그 넓은 공간에 모여 있는 수많은 까치들과 까마귀들 중에서 그 치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아까아악. 그렇게 까불대던 까치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나와 황이의 눈치를 흘끗 보며 풀이 죽는 기색이다.

괜찮다 까치야. 올해 못 찾으면 내년에 찾고 그 때도 못 찾으면 그 후년에라도 찾으면 된다. 아무튼 계속 찾으면 된다. 1억5천만년이나 잠을 잔 내가 그까짓 몇 년 못 기다리겠느냐. 속으로야 정말로 못 찾으면 어쩌나 불안함이 없는 건 아니나 나는 까치에게 구겨졌던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이때다 싶어 더욱 의연하게 말을 하며 황이를 올려다봤다. 황이 또한 내 말이 꽤 근사하다 느꼈는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어느 때보다도 꼬옥 품에 안아준다.

<다음 호에 계속>



정릉야책

정릉야책 4호

펴낸날 2019년12월 19일

편집위원 김가희 김정훈 김해경 마르 문지원 이연수 이해성 차정미

황현숙 허영미 홍승완

디자인 차정미

펴낸곳 호박이닝쿨당쿨

기획/편집 호박이닝쿨당쿨 편집위원회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호박이닝쿨당쿨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45-3



시시콜콜

스삭스삭

호호호호

어느날 정릉 아리랑시장의
한 야채 가게가
책방이 되고
매주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자꾸 동네에서 재미있는 일을
벌이고 싶어진다.
그렇게 정릉야책은 동네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나선다.